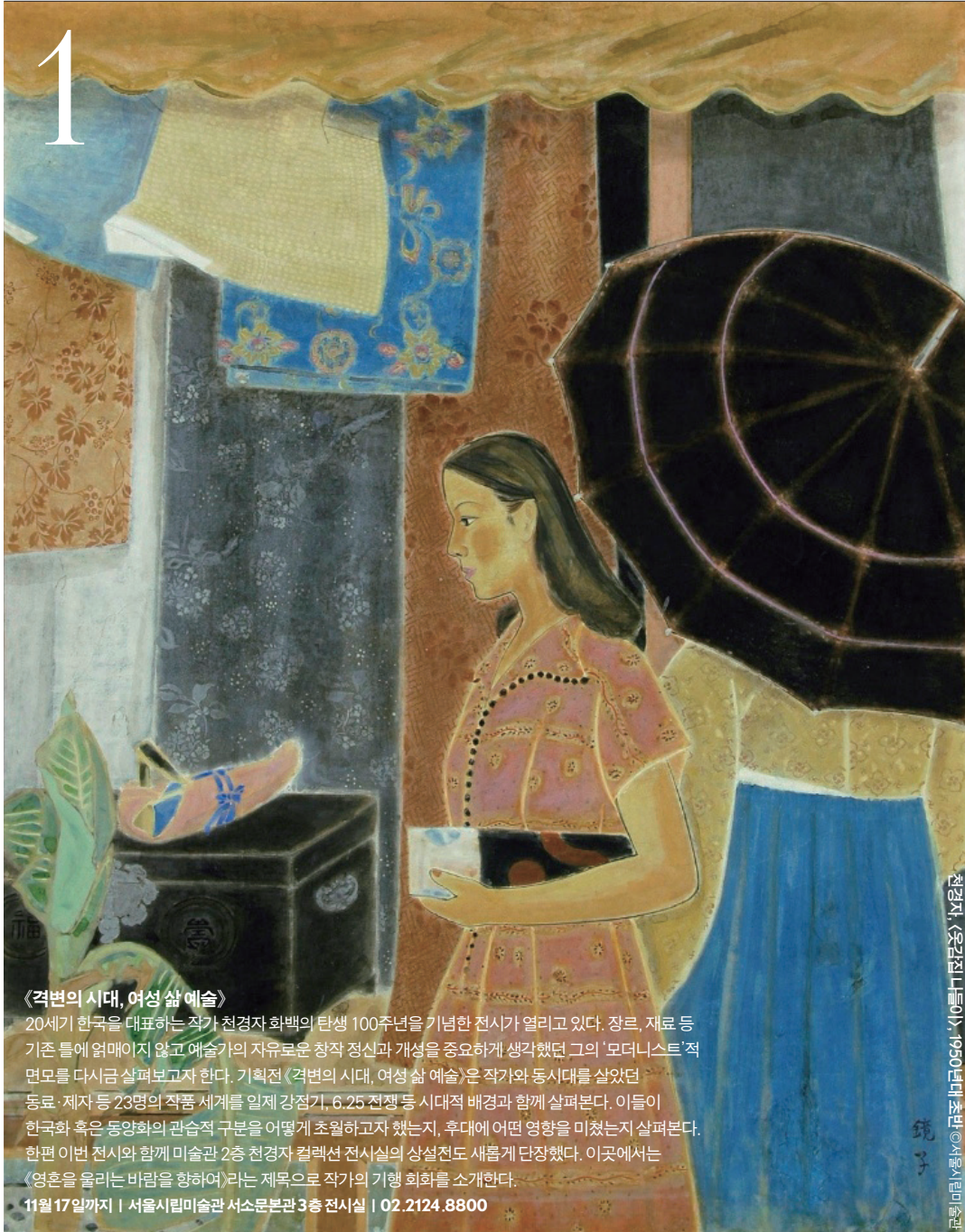


문화 서울

2024 09 VOL. 211

문화서울



《격변의 시대, 여성 삶 예술》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천경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장로, 재료 등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예술가의 자유로운 창작 정신과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의 '모더니스트'적 면모를 다시금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전 《격변의 시대, 여성 삶 예술》은 작가와 동시대를 살았던 동료·제자 등 23명의 작품 세계를 일제 강점기, 6.25 전쟁 등 시대적 배경과 함께 살펴본다. 이들이 한국화 혹은 동양화의 관습적 구분을 어떻게 초월하고자 했는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한편 이번 전시와 함께 미술관 2층 천경자 컬렉션 전시실의 상설전도 새롭게 단장했다. 이곳에서는 〈영혼을 울리는 바람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작가의 기행 회화를 소개한다.

11월 17일까지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전시실 | 02.2124.8800



마리아 주앙 피르스 피아노 독주회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함께 오랫동안 여성 피아니스트의 양대 산맥으로 꼽힌 마리아 주앙 피르스가 오랜만에 한국 무대를 앞두고 있다. 투명하고 명쾌한 터치, 담백한 음악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1944년생 피아니스트의 실연을 볼 수 있는 기회. 이번 무대에선 쇼팽의 녹턴과 모차르트 소나타 두 곡을 연주한다.

9월 20일 오후 7시 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02.6954.7760



노원구에서 열리는 인문학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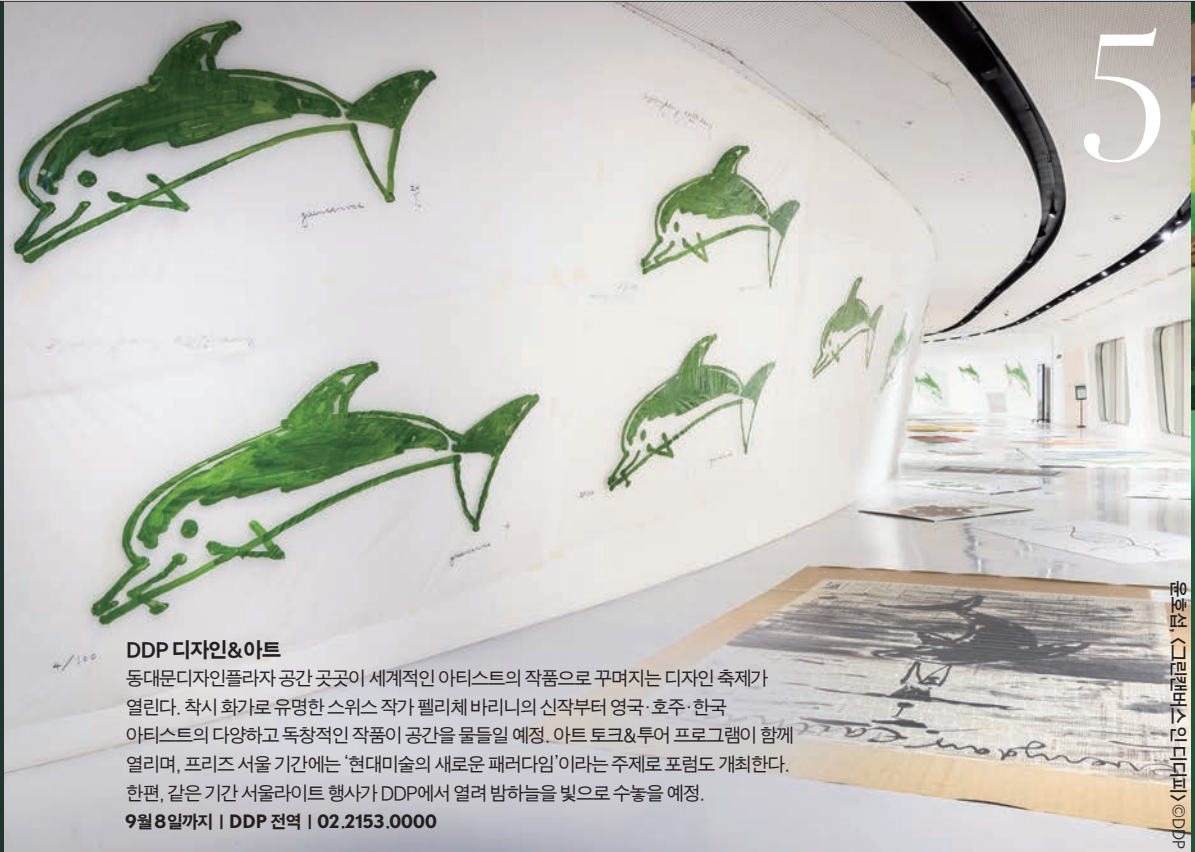
노원문화재단은 9월 6일 노원구민의전당 대강당에서 2024 인문학콘서트 '인지하지 못했던 사사로운 것들'의 1회차 행사를 개최한다. 첫 번째 주제는 '다들 지지 마시길'로, 모두가 기다려온 소설가 장류진, 우주 같은 매력의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 생각의 지평을 넓혀줄 문화평론가 허희 세 사람이 장류진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인의 일상과 애환을 이야기하고 음악으로 관객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2024 고려아 리듬터치 <풍류가곡>

마포문화재단이 준비한 여섯 번째 마포 M 국악 페스티벌 주제는 우리 국악의 다양한 면모를 맛보는 '고려아 리듬터치! 전통과 시대의 트렌드를 멋스럽게 조화한 무대로 국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자 한다. 9월 열리는 두 번째 공연은 정가곡 콘서트로, 아정한 우리 고유의 노래 정가와 아름다운 가사가 돋보이는 가곡이 흥겹게 어우러진다.

9월 27일 |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 02.3274.8600



DDP 디자인&아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공간 곳곳이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작품으로 꾸며지는 디자인 축제가 열린다. 착시 화가로 유명한 스위스 작가 펠리체 바리니의 신작부터 영국·호주·한국 아티스트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작품이 공간을 물들일 예정. 아트 토크&투어 프로그램이 함께 열리며, 프리즈 서울 기간에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포럼도 개최한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라이트 행사가 DDP에서 열려 밤하늘을 빛으로 수놓을 예정.

9월 8일까지 | DDP 전역 | 02.2153.0000

《Good Luck: 십장생》

조각과 회화·사진이 지닌 매체 특성을 결합해 혼성적인 방식으로 작업하는 작가 유현미의 개인전이 열린다. 조각을 통해 오브제를 만들고, 오브제가 설치된 공간에 채색을 통해 빛과 그림자를 부여해 입체감을 만든 뒤 사진을 통해 작품으로 완성하는 방식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십장생도를 소개한다.

10월 6일까지 | 뮤지엄하미 삼청별관 | 02.722.1315



유현미, 여섯 번째 무대 그리림 집을 짓고 No.11, 2024



아름다운 숲 뮤지엄 <수피아의 노래>

밝고 순수한 청각장애 소녀 수피아에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친구인 피아노. 그런데 시골로 이사하던 날 갑자기 피아노가 사라져버리고, 수피아는 피아노를 찾기 위해 무수무수한 숲으로 모험을 떠난다. 흥미로운 여정의 숲 뮤지컬로, 윤혜선이 대본을 쓰고 김길려가 작곡했다.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광진어린이공연장 | 02.2049.4700

운동주문학제

종로구 소재 운동주문학관은 9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운동주문학제를 개최한다. 운동주문학과 맞닿아 있는 시인의 언덕 일대에서 진행되며, 이 기간에는 제10회 전국운동창작음악제 본선 경연과 공연, 제11회 전국 초중생 운동주시화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운동주의 삶과 문학을 조명하는 다양한 공연·전시·체험 강연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2024 운동주문학제

2024 9.28 (토)~9.29 (일)

운동주문학관, 청운문학도서관, 시인의 언덕 등

개회식 9월 28일 13:00 - 15:00

9월 29일 13:00 - 15:00

장소: 종로구 청운문학도서관(종로구 청운로 100)

문의: 02-2049-4700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문화재단, 서울특별시문화재단

주관: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문화재단, 서울특별시문화재단

후원: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문화재단, 서울특별시문화재단



《슈타이들 북 컬처-매직 온 페이퍼》

‘살아 있는 아트북의 전설’로 불리는 출판계 거장 게르하르트 슈타이들의 아트북 1천여 권을 망라한 전시. 패션 브랜드의 아트북부터 미술관의 도록, 예술서에 이르기까지 엄선된 출판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넘겨볼 수 있다. 예술과 예술가의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매체를 탐구하는 여러 작품들 통해 한 권의 책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만나보자.
9월 14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그라운드스페이스 서촌
070.4473.9746

9 10



©Catherine Ashmore/ROH

서울시오페라단 <토스카>
푸치니 서거 100주기를 기념해 국내외 유명 출연진이 함께하는 <토스카> 무대가 준비됐다. 지난해 한강노들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로 호평을 받은 연출가 표현진이 참여해 전쟁의 참상이 드러난 현실을 반영한 프로덕션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우와 임세경이 나홀 공연의 토스카를 책임지며, 김재형·김영우·사무엘 윤·양준모 등이 출연한다.
9월 5일부터 8일까지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02.399.1000

서리를 악기제작 전시회
서초문화재단은 국내 현악기 제작의 우수성을 알리고 연주자에게 다양한 악기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련 전시를 연다. 현악기 제작자 김민성·김병철·김신석·김태석·박영선이 출품한 악기를 통해 이들만의 개성과 특색을 감상하고, 모던 악기의 세계를 소개한다.
9월 7일까지 | 갤러리 반포대로 5 | 02.3477.2461



11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웅녀>

창극의 역사를 새로 장식한 작품이자 국립창극단 대표 흥행작 <변강쇠 점 찍고 웅녀>가 초연 10주년을 맞아 완성도를 높여 다시 무대로 돌아온다. 고선웅의 재치 넘치는 극본과 연출, 한승석의 원전을 뛰어넘는 작창·작곡, 한국인의 흥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극 요소가 관객을 홀리게 할 것. 초연부터 꾸준히 합을 맞춘 이소연·최호성이 남다른 찰떡 호흡을 자랑하고, 새로운 커플로 김우정·유태평양이 합류한다.
9월 5일부터 15일까지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02.2280.4114



©국립극장

12



14

제4회 금천패션영화제

패션과 영화를 결합한 국내 유일의 영화제가 금천구에서 열린다. 올해는 패션영화제의 정체성을 강화해 패션·트렌드·스타일이 두드러지는 경쟁작을 다수 준비했다. 롯데시네마 가산디지털점에서 영화 상영과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마리오·까르뜨니트공장과 G밸리 일대에서는 개막식, 패션쇼, 포토월 이벤트, 특별 초청작 상영 등 부대행사가 예정돼 있다.
9월 6일부터 9일까지 |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일대 | 02.809.8238

13



이승택, <선림이> 놀자! / 비탈·민속놀이 / 연작, 1971(2024 재제작) ©서울시립미술관

《오픈 에어 뮤지엄-풍납토성》

서울시립미술관은 미술관 건물을 벗어나 역사적 공간이자 유구 발굴 예정지인 풍납토성 일대에서 처음으로 야외 전시를 연다. 마치 과거와 직접 연결될 것 같은 장소에서 미술과 미술관의 시공간적 경계를 탐험하는 동시대 미술을 선보이는 것. 8편의 작품이 한성백제 시대의 흔적과 어울려 소통하며, '비미술'이라는 개념으로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탐구해온 작가 이승택의 야외 퍼포먼스 작품 2점을 새롭게 재연한다.
10월 13일까지 | 풍납토성 | 02.2124.8800

©정희승

15



연극 <P와 함께 춤을>

이경성 연출과 코리에이티브 VaQ가 '현대무용의 전설' 피나바우슈의 작업 너머 시간을 들여다보는 특별한 연극 <P와 함께 춤을>을 선보인다. '탐초테이타' 개념을 정립하며 현대무용의 지평을 넓힌 안무가는 2009년 타계했으나 그의 작품은 여전히 새로운 세대의 무용수에게 승계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오늘날 관객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 2021년부터 진행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이번 작품을 완성했다.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 LG아트센터 서울 U+스테이지 | 1661.0017

16

제27회 서울세계무용축제
해의 유수의 작품과 라이징 스타를 국내에 소개해온 서울세계무용축제가 9월 개막한다. 올해는 한국 포함 9개국이 참가해 총 35편을 선보인다. 한국·캐나다 국제 합작으로 완성된 HBE 무용단 <길>이 초연되며, 해의 초청작으로 카스텔루치 3남매의 작품을 소개한다. 국내 초청작으로는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예술가들의 다채로운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젊은 안무가에게 멘토를 배정해 창작에 도움을 주는 ‘시댄스 투모로우’, 전통춤의 현대화를 시도하는 ‘유파전’과 ‘한국의 전통춤’, 현대무용의 대중화를 위한 댄스필름 프로그램 ‘댄스있숨’ 등 다양한 시도가 돋보인다. 공연은 서강대학교 메리홀·삼일로창고극장·대학로예술극장·은평문화예술회관·서울남산국악당 등 시내 곳곳에서 열린다.
9월 1일부터 14일까지 | 서울 시내 각 공연장 | 02.3216.1185



17

요즘 커피 WHAT A Brew TIFUL DAY!
2024.8.20(수) - 11.30(수)
《요즘 커피》
‘밥심’보다 ‘커피 수혈’이 시급한 오늘날, 우리에게 커피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는 전시가 열린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 2위에 달하는 밥과 김치의 동반자 커피가 한 세기 전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와 정착했는지 두루 살펴본다.
11월 20일까지 | 국립민속박물관 본관 기획전사실 2 | 02.3704.3114



19

《삼국삼색-동아시아의 칠기》
동아시아 삼국의 국립박물관이 엄선한 명품 칠기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전시가 9월 폐막한다. 뿔나무에서 채취한 천연 수액을 가공한 도료를 사용한 다양한 칠기를 제작해온 한국·일본·중국의 칠기 46점은 저마다 다채로운 아름다움과 개성을 자랑한다. 진쫂빛이 영롱한 자개를 붙여 꾸민 한국의 나전칠기, 금가루를 칠 면에 뿌려 장식한 일본의 마키에, 겹겹이 칠한 칠 층에 섬세하게 무늬를 새긴 중국의 조칠기를 비교 감상해보자.
9월 22일까지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 02.2077.9000



20

서울 걷자 페스티벌
9월 마지막 일요일, 국내 최대 규모의 걷기 축제가 열린다. 이날만큼은 차가 다니던 도심 길에 시민을 위해 개방된다. 서울 걷자 페스티벌은 DDP를 출발해 홍인지문과 중요·올림픽터를 지나 청와대로를 거쳐 광화문광장에 도착하는 6킬로미터 코스로, 참가비는 무료다. 코스 곳곳에 레이저 조명쇼, 거리예술 공연, 응원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또, 사전 신청한 후 행사에 참여해 코스를 완주하면 특별 한정판 기후동행카드가 증정된다.



18

창작산실 협력 전시<집2P>
아르코미술관은 올해 시각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가 최태훈의 기획전을 열고 있다. 조각가 최태훈·연구자 강민지·독립 큐레이터 방수지로 구성된 기획단이 연출한 전시로, 조각의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조각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1930년대생 김윤신부터 1990년대생 박소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동시대 여성 조각가 16명의 작품을 통해 압축파일을 의미하는 ‘zip’ 파일처럼 조형 실험을 모으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9월 8일까지 | 아르코미술관 02.760.4850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20	서울거리예술축제 2024	28	예술가의 진심
SCENE	10 프리뷰	예술로 물드는 거리, 축제로 풍성한 한가위	뮤지컬 배우 김호영, 예술적 환상 이면의 진심
	16 인터뷰	천대광, 광활한 광장을 채우는 개인의 오라	
	19 인터뷰	안무가 에스더&무용수 데니스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하니까		
22 인포메이션	한눈에 살펴보는 서울거리예술축제 2024	34 예술인 아카이브	정현
		36 예술인 아카이브	조우정
		38 페이퍼로그	홍보마케팅팀 김은지
		전이되는 궁정 에너지	
		40 인사이드	시각예술의 교차로에서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44 인사이드	시민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축제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46 인사이드	전에 없던 새로운 연작 판소리
		쿼츠초이스-입과손스튜디오	
		48 트렌드	먹고, 보고, 즐기는 한국 문화
		파리 올림픽&코리아시즌 리포트	
		52 스크린 너머의 세상	음악이 자연처럼 그곳에 존재할 때
		54 걷다가 마주친 춤	경쟁하는 몸, 경쟁하는 마음
		56 낯말은 새가 듣고 낯말은 시가 읊는다	물 앞에서 하는 약속—물다짐
		58 서울, 문화가 뿌리내린 도시	시대를 품은 풍류남아
		60 K-아트와 한국 미술 가장	한국 수묵 추상 거장, 서세욱
		62 컨트리뷰터	



COVER STORY
예술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장장 닷새에 달하는 연휴가 예고된
울 추석엔 서울광장으로 가자! 두둥실
보름달이 떠오르는 사흘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열린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안미영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4년 8월 30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예술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서울거리예술축제

주말부터 장장 닷새에 달하는
연휴가 예고된 을 추석. '황금연휴'
계획이 아직이라면, 조금
특별한 휴일을 보내고 싶다면
서울광장으로 가자. 두둥실
보름달이 떠오르는 사흘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어느 때보다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예술로 물드는 거리, 축제로 풍성한 한가위

다채로운 예술 작품으로
서울광장을 환히 비추는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연휴를 맞아
광장으로 찾아온다.

무더위가 한풀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민족 대명절 추석이 돌아온다. 가족과 함께 모여 정겹게 음식을 나누고, 밝은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한가위가 올해 더욱 특별해지는 이유가 있다. 바로 추석 연휴 동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예술 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축제를 명절에 맞춰 진행해 연휴로 잠시 비어 있는 도시 공간 곳곳을 다채로운 예술로 가득 채웠다. 마찬가지로 올해 축제도 추석 명절인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또한 도심 속 예술축제라는 타이틀에 맞게 축제의 주 무대는 서울의 중심부인 시청 앞 서울광장부터 무교로를 따라 청계천과 청계광장까지 이어진다. 각 공간에서는 거리극·무용·음악·전통연희와 같은 야외 공연부터 설치미술과 미디어아트, 그리고 참여형 공연, 야외 서커스 등 평소에 쉽게 만나볼 수 없던 다양한 형식의 예술 작품이 펼쳐질 예정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의 일상 공간이 새롭고 낯선 축제의 공간으로 잠시 탈바꿈하며, 거리 곳곳이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이 날만큼은 축제의 계절이 된다.

**길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늘 사람들의 이야기와 혼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기억은 언제나
길의 풍경과 온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걷는 거리를
예술로 바라보고,
다시, 거리의 예술이
예술의 거리를 만들었던,
예술이 거리로 나왔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다시 거리를 돌려받으려 합니다.
시간을 놓친 우리에게
들려줄 거리(some)
예술로 거리를 가득 채울
줄거리(story)
그리고 예술축제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줄 거리(street)
2024년 흘러가는 서울의 길에,
혼적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두겠습니다.**

← 서울거리예술축제 2023에서 선보인
천하제일탈공작소×프로젝트 날다 〈니나네나 니나노〉

서울거리예술축제 2024의 주제는 ‘줄거리’다. 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몸소 느끼며, 관객은 단순히 작품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특별한 예술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축제를 찾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줄거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거리예술축제가 관람객 마음에 남는 한 가지 이야깃거리가 되길 바라며, 서울광장에서는 축제가 열리는 동안 매일 밤 예술적 달맞이가 펼쳐진다.

특별한 달맞이로 문을 열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하는 거리〉는 첫날인 9월 16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진행된다. 전야제는 화려하게 축제의 막을 올리며 관객을 맞이하는 공연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아티스트가 한자리에 모여 하이라이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속 작은 축제이기도 한 전야제 공연은 관객에게 앞으로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거리를 가득 채울 예술 작품을 미리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전야제의 뜨거운 열기로 서울광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서울광장 하늘 위엔 두 개의 달이 뜬다. 추석 하늘의 커다란 달 옆, 우리 가까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달, 그 정체는 바로 프로젝트 날다〈서울의 달〉공연에 등장하는 대형 달이다. 서울광장 하늘에 뜬 서울의 달 위를 달 토끼들이 뛰놀며 미디어·공중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이 특별한 공연은 올해 축제에서 처음 만날 수 있다. 서울광장을 환히 비추는 두 밝은 달을 향한 예술적 달맞이로 축제의 시간이 시작된다.

추석 당일에만 볼 수 있는 작품!

**다 함께,
꽤지나 ‘창창’ 나네**
축제 둘째 날이자 추석 당일 저녁을 환히 밝혀줄 달맞이는 서울거리예술축제 2024 제작공연〈꽤지나 창창 나네♥〉다. 이번 공연은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위상을 인정받는 안은미컴퍼니와 함께한다. 서울광장 전체를 무대이자 객석으로 활용하고, 150여 명 아티스트와 함께 초대형 종합예술 공연을 펼친다. 공연이 시작되면 달 토끼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서울의 밤거리를 순식간에 달나라로

바뀌버린다. 네온사인은 달빛으로 변하고, 도로는 은하수가 되며, 빌딩 숲은 계수나무 숲이 된다. 승무와 창, 사당패의 전통 공연으로 시작해 현대무용·대중음악·공중 퍼포먼스, 그리고 DJ 파티로 이어지며 지금껏 어디서도 볼 수 없던 풍성한 한가위 대잔치가 펼쳐진다.

무용부터 설치미술까지 핀란드에서 캐나다까지

올해 서울거리예술축제는 명절의 즐거움과 모두의 바람, 그리고 일상 공간에서의 예술적 만남을 축제로 전하고자, 공모·초청, 제작공연을 통해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결정했다. 기존 단일 트랙이던 공모를 국내 작품 기획형과 자유형으로 나누고, 해외 작품 공모를 추가했다. 그중 기획형으로 선정된 프로젝트 날다〈서울의 달〉은 서울광장에서 많은 시민이 함께 서울의 기억을 공유하고 예술적 달맞이를 펼치는 작품으로 기대를 모은다. 자유형 작품으로는 거리극·무용·전통연희·인형극·서커스 등 신선함이 돋보이는 작품 8편이 선정됐다. 특히 두 택배기사가 무교로 한복판에서 펼치는 한바탕 소동극을 그린 프로젝트 통 〈기사들〉은 일상에서 만나는 낯선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년간 중단됐던 해외 작품 공모를 올해 재개해, 세계 여러 아티스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17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핀란드·스페인 등에서 찾아올 4편의 작품이 한국 관객을 기다린다.

공모를 통해 선보이는 작품뿐만 아니라, 올해의 초청작 역시 기대해볼 만하다. 예술과 건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작업해온 천대광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 〈아른아른, 하늘하늘〉을 축제 기간 내내 서울광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커다란 구조물에 알록달록한 조각이 훑날리는 이 작품은 마치 명절에 입는 색동옷을 연상시키며 어딘 시절 추석의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해외 초청으로 참여하는 캐나다의 르 파탱 리브르Le Patin Libre는 서울거리예술축제를 통해 처음 내한한다. 피겨 스케이터 출신의 아티스트로 구성된 이들은 주로 아이스 스케이팅이 접목된 신체극을 선보여왔다. 이번 축제에서는 스케이트의 날을 롤리로 교체하고, 빙판 위가 아닌 도로 위를 미끄러지며 〈롤러와 첼로Wheels & Cello〉라는 작품으로 아찔하고 색다른 쇼를 선사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하게 거리예술과 서커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이번 축제에서 센터의 제작공연인 〈레인저스 케이크〉를 선보인다. 다원예술과 무용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뭉Muip과 함께 기획, 서울광장에 놓인 거대한 수수께끼 상자가 그 정체를 드러내며 관객이 레인저스가 돼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일상 속 예술공감 콘서트 ‘서울스테이지 2024’가 준비한 특별 공연도 축제에서 만날 수 있다. 청계천 광통교를 무대로 삼아, 소리꾼 오단해의 전통 공연 〈풍류〉와 로큰롤·재즈의 시원한 만남을 느낄 수 있는 〈ROCK-A-BILLY〉두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축제를 이끄는 사람들 자원활동가

축제를 더욱 빛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현장 곳곳에서 만날 자원활동가들이다. 2023년 들어 4년 만에 재개한 자원활동가 모집은 놀라운 지원자 수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100여 명의 자원활동가를 축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 종합안내소, 공연 현장, 무대 뒤편 여기저기서 활동하며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객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힘을 예정이다. 또한 자원활동가가 직접 기획한 이벤트와 플래시몹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들의 눈부신 활약도 놓치지 말자.

모두를 위한 축제, 누구에게나 가까운 축제

축제에서 선보이는 작품과 프로그램이 다양해진 만큼, 올해 축제는 관객과 관람 방식의 다양성도 챙겼다.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열린 야외공간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고자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축제 현장은 여러 제약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올해 축제 프로그램 북에는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안내 지도를 제공한다. 지도에는 장애인 화장실이나 수유실의 위치 등 정보를 표기해 축제 현장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 각각의 작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특이 사항을 접근성 픽토그램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공연 중 관객이

→ 르 파탱 리브르의 컨템퍼러리 스케이팅 작품 〈롤러와 첼로〉
©F.X Hartem





↑ 아이모멘트 <벽: 돌파구를 찾는 몸> ©masilsnap
 << 베들렘 옌즈 <슬링키 대소동> ©Birmingham Festival
 < 리퀴드 사운드 <OffOn연희해체프로젝트II> ©꿀벌필름

이동하는지, 대사가 존재하는지, 큰 소리나 시각에 영향을 주는 강한 빛 효과가 있는지 프로그램 북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다누림관광센터와 협력해 축제 공간 내 휠체어가 접근하기 어려운 일부 구간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축제 안내소에서는 휠체어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사전 신청을 받아 인근 지하철역 또는 버스 정류장부터 축제 공간까지 안전한 이동지원 서비스도 운영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외에도 <꽤지나 창창나네♥>는 공연 중 실시간 자막을 제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제약 없이 공연을 만끽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무르익은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며 일 년 중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추석을 표현하는 옛말이다. 추석 연휴 동안 진행되는 서울거리예술축제도 잠시 비어 있는 도심을 다채로운 예술 작품으로 채우며 풍성한 축제의 시간을 선물하고자 한다. 평범한 일상의 거리는 예술로 활기를 더하고, 축제를 찾은 이들의 마음은 예술로 충만하게 물들기를 기원한다.

천대광, 광활한 광장을 채우는 개인의 오라

작가가 그리는
이상도시는 우리 삶을
깊게 관통해 자신만의
색깔로 도시를
물들인다.

2000년대 초부터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조각·설치·회화·공예·건축 전 영역을 아우르는 작품세계를 펼쳐낸 작가 천대광. 그동안 한 갈래로 규정할 수 없는 여러 굵직한 프로젝트에서 그의 이름을 마주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 작은 도시를 만들기도 하고 《집우집주》²⁰²¹⁻²²), ‘견인도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양평과 독일 오버하우젠을 탐구하고, 국내 각지에 그만의 구조물을 만들었다. 올해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그는 광활한 서울광장을 자신만의 색깔로 물들인다. 주변 분위기와 공기 흐름마저 작품에 녹여내며 익숙한 공간을 낯선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의 작업 안에서 관람객은 새로운 관계성을 맺고 공간을 새로이 인식한다.

그동안 한 매체에 고정되지 않은 폭넓은 작품세계를 선보였죠.

일반적으로 작가들은 한 가지 기법이나 주제에 평생 천착해요. 재료의 물질적 특성을 지배해 작품 완성도를 높이려는 이유가 크죠. 저는 완성도보다는 재료와 테크닉을 실험하는 데 흥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료와 주제에 천착하면 어느 지점에서는 자가 복제에 머물면서 창의적으로 작업하기 어려워요. 그 점을 경계합니다. 외주나 하청이 만연한 현대미술 신에서도 정신적 주체와 물리적 주체는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의 손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과 제 손으로 하는 건 차이가 커요. 대량 생산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중국에는 실험한 기법, 재료 등이 한 작품 안에서 결합해야 합니다.

천대광의 작품이 항상 새로운 이유네요. 서울거리예술축제 2024에서 선보이는 〈아른아른, 하늘하늘〉은 유년 시절 추억, 한가위 민속놀이와 세시풍속에 바탕을 둔 작업이라고요.

축제가 추석과 겹쳐 자연스럽게 한가위를 떠올렸어요. 추석 풍경과 세시풍속은 『삼국사기』와 중국 수나라 역사를 기록한 『수서』 등에 기록돼 있어요. 8월 15일이면 활쏘기 시험에서 이긴 자에게 왕이 포목을 하사하거나, 7월 16일부터 8월 보름까지 왕이 신라 6부의

← 〈건축적 조각/공허한 빛의 집/RGBCMYK 유리집〉, MMCA 청주프로젝트 2021 〈천대광: 집우집주〉 전시 전경 ©국립현대미술관



여자들 가운데 두 왕녀를 뽑고 부녀 여자를 두 패로 나눠 길쌈을 하게 했죠. 민속놀이는 한반도 지역 특성에 기인합니다. 게다가 추석은 다가올 겨울 의복을 장만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옷감을 짜는 풍속은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부터, 세시명절은 농경에 적응하면서 생겼다고 보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 세시풍속을 경험했고, 그 기억을 반영해 설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천대광 특유의 기하학 구조와 다양한 빛깔이 기대됩니다.

기본적으로 삼각형과 육각형이 점증되는 형태입니다. 천지인삼재와 삼태극 도형, 환웅이 이끌고 온 3천 명 무리, 동아시아 전설의 새 삼족오, 전통음악에서 자주 나타나는 3박과 고전 시가의 3음보 등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3은 우리 민족에게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3의 배수인 3·6·9도 중요하죠. 건축 구조적으로도 가장 안정되고 튼튼한 숫자입니다. 별집 구조가

천대광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 쿤스트아카데미에서 공부했다. 2007년 마이크와 디역 뢰버트에게서 마이스터실러 과정을 마쳤다. 《빛이 깨울 때》(2023, 서울식물원), 《가볍고 희미한 빛》(2022, 호리아트스페이스), 《집우집주》(2021,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공간실험》(2020, 양평군립미술관) 등 18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 서울과 양평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자연에서 가장 완벽한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런 3의 의미를 담아, 삼각형 결합 구조의 각 변에 커튼처럼 미세한 그물 구조의 24색 천을 드리울 거예요. 그 천이 투영되고 가산 혼합하면서 무수한 색의 스펙트럼이 펼쳐지는 작업입니다.

장소나 공간과 연관 있는 작품을 자주 보여줬는데, 이번 작품도 광장 안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할지 궁금합니다. 작품을 구상할 때 특정 공간에 어떻게 접근하나요.

장소 특정적이라는 의미를 간단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전시 장소 이외의 곳에서는 작품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보면 장소 연관적

작업은 많지 않아요. 그만큼 공간에 접근하는 방식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작업에 따라 공간 자체를 분석하거나 건축물의 역사적 의미를 공부해 건축물과 연결고리를 맺을 방법을 고민해요. 주변 지형을 미술관 내부로 끌어들이거나 특정 공간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해 예술 오브제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독일에서 활동할 때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축물이나 장소에서 종종 작업했어요. 사실 한국에 돌아온 후로는 그런 전시 공간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다른 작업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 공간과 장소에 대한 깊은 고찰에서 출발한 작품을 선보일 때는 물리적 특성을 파고드는 것 외에도, 지형·역사·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리서치가 빛을 발했죠. 독일과 한국 등에서 직접 도시 전체의 거리와 건축물·시설물 등 사진과 영상 자료를 수집해 도시 문화와 정체성을 연구하고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었죠. 역사적 사실이나 논문은 웹에서 정보를 구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동남아시아 국가와 일본 등을 자주 여행하면서 다량의 건축물과 도시 곳곳의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고

작품 소재로 활용했어요. 평범한 일반 주택의 건축 양식에도 민족 고유한 전통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흥미롭네요.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캄보디아의 톤레사프 호수 수상가옥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인도네시아계예요. 11세기 참파 왕국의 참족이었던 이들이 크메르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해 정착할 땅을 잃고 물 위에 집을 지었죠. 이후 베트남의 보트피플이 유입되고 땅이 없는 이들이 모여 마을을 이뤘어요. 베트남 주택은 길과 면한 앞은 좁고 이웃과 다닥다닥 붙어 안쪽으로 긴 구조인데, 프랑스 식민 시대 때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결과물이에요. 집은 환경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돌이 많은 곳엔 돌로, 나무가 많은 곳엔 나무로 집을 짓고, 몹시 춥거나 더운 지역의 집은 벽이 두꺼워요. 건축 양식은 역사·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것의 집약체죠. 제 리서치 과정은 결국 현재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공 설치 작품도 많이 선보였는데, 이런 작품에서 관람객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저는 작가가 실험실의 과학자와 같다고 봐요. 작품은 지극히 개인적인, 조형과 미학 실험의

결과물이고, 그 자체로 종결되죠. 순수미술은 항상 가장 개인적이되 동시에 미술사적 의미를 고민해야 해요. 대중의 구미에 관한 고민은 상업디자인의 몫이에요. 저는 결과물을 대중에 감상하죠. 대중 참여적 미학을 실현하는 작가도 있지만, 저는 아닙니다. 관람객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제 관심은 내부로 향해 있고, 저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생산하고자 골몰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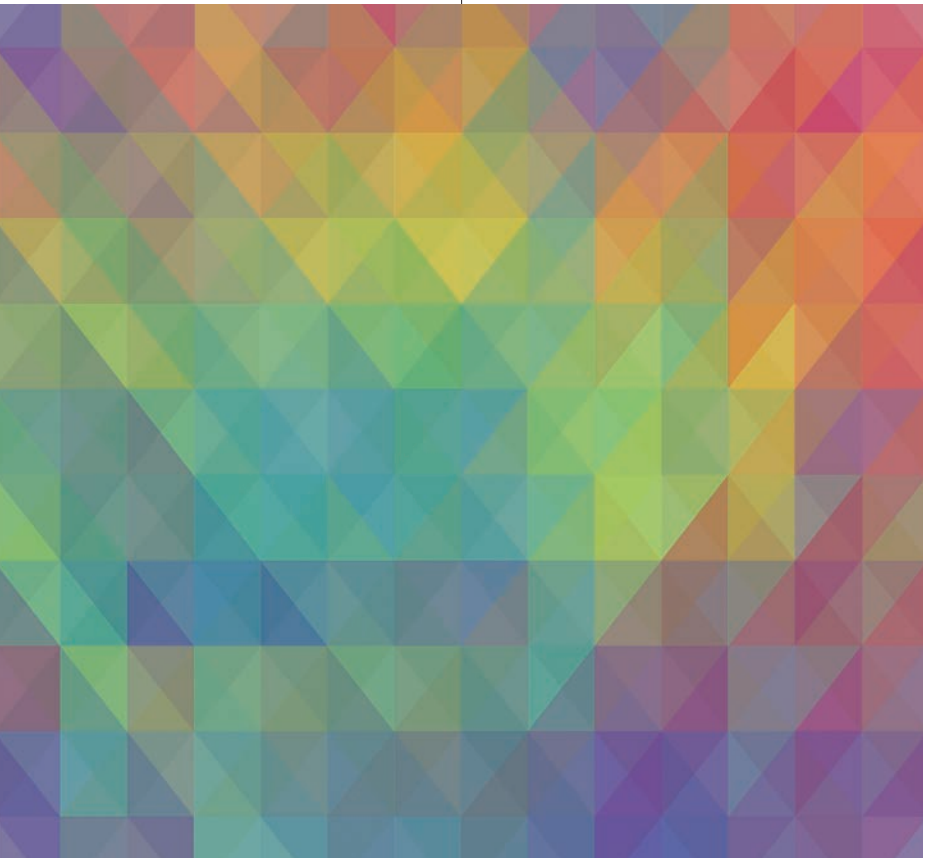
결국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한 진정성 있는 작업이 더욱 관람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네요. 그럼 천대광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요?

삶 자체입니다. 고정된 주제를 파고들지 않아 작품 유형이 다양한 만큼 약간 산만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자신에게 집중해요. 가령 여기 제가 존재한다고 치면, 제가 살 집을 짓고, 매일 아침 일어나 쉬지 않고 저에게 필요한 걸 만들어갑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면 스스로에 대해 잘 알아야 해요. 생활 방식, 생각, 취향을 고민하고, 나아가 나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죠. 작업을 한다는 건 계속해서 자신을 지켜보는 과정이에요. 저는 작품의 우상화나 과도한 의미 부여를 지양합니다. 작품이란 저에게 집중하는 동안 생산된 부산물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 작업하는 동안의 제가 중요합니다. 삶과 얹이 곧 사람인 것처럼요. 매일 저를 알고 싶어서 작업해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세상과 소통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물론 결과물을 공공장소에 전시하고 사람들이 제 작품을 관람하면 기쁘죠.

마지막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주제나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런 걸 미리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2013년부터 선보인 ‘견인도시 프로젝트’의 하나로, 현재 거주지인 양평군을 리서치한 ‘물까지 프로젝트’ 2016를 선보였는데요. 이처럼 현실에 기반해 저만의 이상도시를 계획하고 실험하고 있어요. 이와 병행해서 여러 작업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시에 많이 참여하는 작가는 아니지만, 현재 한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작업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제 작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 〈아른아른, 하늘하늘〉조감도, 작가 제공



안무가 에스더 & 무용수 데니스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하니까

스페인을 떠나 생면부지 한국에 도착한 안무가는 관찰하고 배우며 한국 문화를 깊이 흡수했다. 그렇게 서울 거리 한복판에 놓인 작품은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당위를 이야기한다.

에스더 엘렌ESTHER EEELENE

에스더 로페스 나바로Esther López Navarro는 “걷는 법을 배우기 전부터 춤을 추면서” 다섯 살에 무용수라는 꿈을 갖게 됐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플라멩코·스페인춤·발레·현대무용 등 다양한 춤을 배웠다. 컨서바토리에서 발레를 전공했으나 토슈즈보다 양말이 더 편했고, 스스로를 ‘컨템퍼러리 댄서’로 부르기 시작했다. 현재 안무가이자 프리랜서 무용수로 활동하며 여러 단체와 협업하고 있다.

데니스DENIS

중학교 3학년 당시 댄스동아리에서 춤을 시작했다.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미디어 활동을 활발히 했고, 이후 거리예술을 알게 되면서 모다페MODAFE를 비롯한 무대에 서기 시작했다. 제대 후 ‘리타이틀’을 창단해 축제 현장을 누비고 있으며 예술무대산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과 꾸준히 협업하고 있다.



에스더 엘렌은 1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번 축제의 ‘해외 공모작’으로 선정됐다고 들었다.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어떻게 알게 됐나. ESTHER 한국에 워낙 관심이 많은지라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에 관한 이벤트를 늘 찾아보고 있었다. 그러다 국제 공모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내가 만든 안무가 처음 태어난 장소로 돌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거리에서 열리는 축제라는 점이 인상 깊었는데, 무엇보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관객의 반응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 Ningú (no) és perfecte〉는 2023년 초 서울에서 안무한 작품이라고. ESTHER 스페인의 한 단체로부터 안무를 의뢰받은 데서 시작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싶었고, 창작을 위해 편안한 장소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뭔가를 경험하고 싶었다. 사실 한국은 아는 사람도 없고, 내게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였다. 한국 문화는 아무것도 몰랐다. 단, K-팝이 왜 그렇게 성공했는지는 궁금했다. 그 호기심이 나를 이곳에 오게 했다. 한국에 도착해서는 큰 창이 나 있는 카페에 자주 들러 몇 시간씩 사람들이 걸어가거나 말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들은 항상 서둘렀고, 누군가는 지갑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또 비틀거리기도 했다. 관찰한 움직임을 노트에 기록했고, 연습실에 가서 복기하며 안무를 만들어보는 식이었다. 이후에는 K-팝 댄스를 배우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전통무용과 태권도도 익혔다. 그 과정에서 문화적 충격 Culture Shock을 적잖이 경험했다. ‘내가 아기가 됐구나!’ 작은 것부터 배워야 했고, 음식을 주문하고 지하철표를 사는 것조차 전부 새로웠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하는지부터 살폈다. 보디랭귀지조차 새롭더라. 그 끝에 나는 새로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함께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작품에 담으려고 했다.

프로덕션 조건으로 한국 무용수의 참가를 명시했는데.

ESTHER 작품을 만든 곳, 작품의 영감을

받은 곳이 한국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에 함께하는 무용수들은 모두 작품에 영감을 준 이들이다. 이들과 함께 작품이 처음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순환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국 무용수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무용수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작품이 완성된다고 본다.

이번 공연에 무용수로 함께하는 데니스는 에스더와 어떻게 인연이 됐나.

DENIS 지난해 봄, 현대무용 수업을 하는 서울탄츠스테이션에서 춤을 배우러 온 에스더를 처음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 문화를 알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를 배우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K-팝 댄스만 아니라 한국무용까지 배우더라. 에스더는 서로 다른 문화를 어떻게 융합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몸으로 표현할지 자신만의 방법을 알고 있는 안무가다. 열심히 리서치하고 안무한 것을 알고 있기에, 완성된 작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국내의 여러 예술가와 활발히 협업하고 있지만, 해외 예술가와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동시대에 활동하는 해외 안무가는 어떻게 작업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렇게 이번 공연에 참여하게 됐다.

ESTHER 이 프로젝트를 위해 내가 한국에

온 것처럼, 한국의 예술가들도 스페인에 와서 협업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후에 데니스가 소속된 ‘리 타이틀’과 프랑스·스페인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무용수로서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라는 작품을 소개한다면.

DENIS 사람은 누구나 자아를 갖고 있지 않나. 자아는 완전할 수 없고, 분명히 불완전한 부분이 공존하고 있을 거다.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다보면 스스로 불완전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조차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각자만의 길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작품 안에 여러 음악이 사용된 것이 인상적이다. 첫 번째 곡으로 딘 마틴Dean Martin의 올드팝 ‘Everybody Loves Somebody’ 1947를 선곡했다.

ESTHER 애뜻하고 따뜻한 마음, 사랑을 담고 싶었다. 이 노래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나의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자아를 찾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과는 무엇이 다른지 알게 되고, 또 삶의 각 단계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애뜻하고 따뜻하지만, 한편으로는 완벽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 불완전함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니까.

그렇다면 스페인 가수가 부르는 ‘Me Robaste El Sueño (You stole my dream)’ 2009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스파나어라 스페인과 한국 관객의 반응이 사뭇 다를 것 같다.

ESTHER 인간의 생애에 비유할 때, 첫 번째 곡이 유아기라면, 이 곡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 장면에서 무용수들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한 줄로 서 있지만, 그 줄이 무너지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한다. 노래 역시 나오고 끊기기를 반복하면서 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가사를 모르더라도 무용수의 표현과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한다.

“당신은 레벨 10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반복되는 이 사운드는 ‘목표 달성’을 외치지만, 여전히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ESTHER 이때 무용수들은 모두가 원하는 목표인 ‘레벨 10’을 달성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여전히 달리고 싶은가? 그게 우리의 꿈이었을까? 인생은 마치 게임 같지 않은가.

작품에 등장하는 타악 리듬이 한국의 전통 타악과 어쩐지 친숙하게 느껴진다.

DENIS 작품에 사용된 음악을 들으면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확실하게 다른 지점이 있다. 에스더가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영감으로 삼아 완성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 점이 작품에 반영되면서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싶다. 다른 점이라면, 작품 음악에 등장하는 타악 리듬은 우리 전통 리듬에 비해 좀 더 강렬하고, 변칙 구조를 이루고 있다.

ESTHER 한국 춤과 스페인 플라멩코가 비슷한

부분이 꽤 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아닐까? 작품 전반에 있어 전통과 새로운 트렌드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했다. DENIS 이런 부분이 관객들이 특히 재밌게 눈여겨볼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

무용수로서 에스더의 안무 스타일을 이야기한다면.

DENIS 다른 작품에 비해 무용수 개개인의 자유로움, 순수한 에너지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다고 느낀다. 공연을 위해 모인 무용수를 보면 비보잉·컨템퍼러리 댄스 등 세부 장르도 다양하고 국적도 전부 다른데, 이렇게 서로 다른 무용수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합해내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다. 무용수 한 명 한 명의 장점과 느낌, 에너지를 존중하고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무가로서 에스더의 강점이다.

안무가로서 한국 무용수들은 어떤 개성이 있다고 느낀다.

ESTHER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다. (웃음) 일단, 한국 무용수들이 지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대부분 완벽주의자이고, 호기심이 많아 집요하게 알아내려고 한다. 유럽과 한국의 무용수를 비교하자면 가장 큰 차이는, 한국 무용수들은 어떤 안무를 완벽하게 숙지한 후 자기 표현을 더해가는 편이다. 반대로 유럽 무용수들은 자신의 표현이 앞서고 이후에 차차 동작을 발전시켜나가는 편이다. 안무가로서는 둘 다 좋다.

‘리 타이틀’이라는 단체로 이전에도 서울거리예술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 이번 축제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

DENIS 공연자에게 공간은 중요하다. 특정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거리예술축제의 묘미는 거리에 축적된 흔적과 역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아닐까. 그러한 공간에서 관객과 만들어낼 관계의 미학이 기대된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인 만큼, 국내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선보일 자신만의 작품이 궁금하다.

한눈에 살펴보는 서울 거리예술축제 2024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청계천과 무교로 일대까지,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예술적 난장’을 한데 모았다.

*공연 세부 일정과 내용은 축제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람 전 서울거리예술축제 누리집(ssaf.or.kr) 또는
인스타그램(@ssaf.official)을 확인하세요



전야제

○○하는 거리

축제 참여 아티스트
9월 16일 오후 6시 30분 | 서울광장
1시간 30분

서울거리예술축제 2024 참여 아티스트들이
준비한 갈라 무대. 축제 기간 서울 거리를
수놓을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 미리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축제를 함께 맞이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내일의 축제를 상상하며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거리를 채운다. 국내외
8명(팀) 아티스트가 참여하며, 프로젝트 날다의
공연 <서울의 달>이 어우러진다.

국내 초청

아른아른, 하늘하늘

천대광
9월 16·17·18일 | 서울광장
상설 전시

건축 요소를 기반으로 조각·설치·회화·사진·
디자인·가구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실험을
진행하는 작가 천대광이 어린 시절 추석 풍경에
대한 반추를 담아 서울광장에 대형 설치 작업을
펼친다. 추석 때때옷의 색동과 미로처럼
이어진 마을의 돌담, 집마다 빨랫줄 위에서
하늘거리며 너풀대던 이불 흘청, 사촌들과
술래잡기하다보면 얼굴을 스치던 바람의
냄새와 느낌을 표현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상주단체

덤덤(주인이자 노예인 바보들)

공연창작집단 사람
9월 18일 | 서울광장
25분

매년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우리 사회와
사람의 존재를 조명하는 작품을 선보여온
공연창작집단 사람이 새로운 작품을 발표한다.
화려한 기예 이면의 서커스, 끊임없이 흔들리는
도구 위에서 행위를 하는 신체를 통해 현대사회
속 인간의 불안함과 흔들림을 바라본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흔들림에도 멈추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낸다.

제작

꽤지나 창창 나네♥

안은미컴퍼니
9월 17일 오후 7시 | 서울광장
1시간 10분

안은미와 달 토끼들이 지구로 내려와, 서울의
밤거리를 순식간에 달나라로 바꿔버린다.
변화가의 네온사인은 달빛으로 변하고, 도로는
은하수가 되며, 빌딩 숲은 계수나무 숲으로
변신한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 꿈같은 세계로
뛰어들고, 서울 토끼들과 함께 약방아를 찧으며
창창한 내일을 꿈꿔보자.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제작

레인저스 케이크

뿔
9월 18일 | 서울광장
20분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특정 장소의
맥락에 신체·사물을 배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간과 안무, 현상을 실험하며 장르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뿔이 서울광장에서 선보일
<레인저스 케이크>는 이러한 궁금증에서
시작한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언박싱’으로
퍼포먼스가 시작되며, 상자 안 설치물과
퍼포머의 움직임이 광장을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시킨다.

국내 공모(자유형)

돌연한 출발

일장일만 컴퍼니
9월 16·17·18일 | 무교로 *사전 예약 필수
20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여행이야말로 정말이지
엄청난 여행이란 것입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 「돌연한 출발」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인형 퍼포먼스다. 관객은 텐트 안에 모여 앉아
그저 떠나기 위해 떠난 한 인간의 이야기를
듣는다. 오토마타 인형, EDM,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환상적이고 엄청난 여정이 펼쳐진다.

국내 공모(기획형)

서울의 달

프로젝트 날다
9월 16·18일 | 서울광장
30분

높게 떠오른 축제의 달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공중 퍼포먼스. 공중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공연을 선보이는 프로젝트
날다가 크레인을 이용해 대형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지름 3미터 크기의 공중 원형
오브제는 빛이 되고, 사람들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환한 보름달과 우주가 돼 광장을 밝힌다.
희망의 빛을 보내는 서울의 달에 각자의 염원을
담아보자.

국내 공모(자유형)

기사들

프로젝트 통
9월 17·18일 | 무교로
40분

유통 혁명의 시대, 도시민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밤낮으로 거리를 누비는 기사들의
우스꽝스러운 ‘택배 서커스쇼’가 펼쳐진다.
신속한 배달을 위해 속도 전쟁을 벌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 적과 맞서는
돈키호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프로젝트
통이 선보이는 쓸쓸하면서도 쾌활한 코믹
오브제극.

국내 공모(자유형)

두 점 사이

엔리쉬댄스컴퍼니
9월 17·18일 | 청계천
30분

안무가 김재권을 필두로 한 엔리쉬댄스컴퍼니는
비보잉 무용수와 현대무용, 물리학을 융합한
춤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작품은 현대무용과
스포츠를 결합해 라이브 밴드와 함께하는 도식
속 클라이밍을 콘셉트로, 기울어진 무대 위에서
열정적인 춤이 펼쳐진다. 제즈·펑크·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익숙한 음악들을 작·편곡하는
092 밴드와 협업한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상주단체
랩퍼토리
코드세시
9월 16·17일 | 청계천
1시간

‘랩퍼토리’는 실험실lab과 레퍼토리repertory의 합성어로, 서커스 기구와 일상 속 사물의 만남을 실험적으로 풀어낸 세 가지 컨템퍼러리 서커스다. 시어윙과 롤러스케이트를 결합한 ‘윙리틱’, 트라페즈에 옷을 더한 ‘덧, 덧’, 그리고 차이니즈폴에 우산을 결합한 ‘우산 아래’가 차례로 펼쳐진다. 다양한 방식으로 서커스 창작을 시도하는 코드세시의 공연을 기대해보자.

국내 공모(자유형)
벽:돌과구를 찾는 몸
아이모멘트
9월 17·18일 | 무교로
40분

아이모멘트는 창단 이래 거리와 공공 공간에서 작품을 발표하며 공간과 장소를 매개하는 여러 기억을 작품의 소재로 삼고 있다. 이번 작품은 한계를 넘어서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과 벽을 향해 몸을 던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계를 넘어서고자 몸을 던지는 이들의 서사가 역동적인 몸짓, 이미지, 대형 오브제와 조형성을 만들어낸다.

국내 초청
신나는마칭 퍼레이드
봄비트 브라스밴드
9월 17·18일 | 청계천·무교로
30분

브라스밴드의 열정적이고 신나는 연주가 서울 도심에서 펼쳐진다. 대중가요·팝·재즈·힙합 모든 장르를 넘나들며 신나게 공연하는 마칭 퍼레이드. 악기만 있으면 어디든지 공연장으로 만드는 봄비트브라스밴드는, 브라스밴드의 대중화를 목표로 여러 음악 장르를 소화해내고 있다.

국내 공모(자유형)
모빌리티
멜랑콜리댄스컴퍼니
9월 17·18일 | 무교로
30분

멜랑콜리댄스컴퍼니는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를 예술로 바라보며 삶을 주제로 속도와 리듬감, 무게의 변주를 통해 인간사와 현상에 관한 통찰을 전하는 단체로, 2016년 창단했다. 〈모빌리티〉는 포스트휴먼이라는 새로운 인간상이 제시되는 시대에 모빌리티의 개념이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지 다양한 오브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협력 공연
서울스태이지 2024 ‘풍류’
오단해
9월 17일 | 청계천
40분

장르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무대와 방송에서 활약하는 소리꾼 오단해, 대중음악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 네 명이 모여 축제 무대를 채운다. 오단해의 강점인 전통음악은 물론,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노래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곡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재해석하여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무대를 만나 볼 수 있다.

국내 공모(자유형)
싱인바디
창작집단 이름
9월 17·18일 | 환구단 *사전 예약 필수
30분

‘삶이 예술이다’라는 모티프로 밋줄을 이용한 움직임 작업을 하는 창작집단 이름의 공연이 펼쳐진다. 치유의 공간에 흐르는 몸의 언어를 통해 상처와 기억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온종일 수고한 몸을 돌아보며 마음을 위로받는다. 예술 장르에 구애받기보다는, 공연자와 관객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작품.

국내 공모(자유형)
무대위에서
김영주
9월 16·17·18일 | 청계천·서울광장
30분

‘내가서 있는 곳이 어디든 무대가 된다’는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거리를 무대 삼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즉흥마임을 선보인다. 김영주는 다양한 무대 언어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을 제작하며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를 찾고자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또 비예술 분야와 협업해 새 장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협력 공연
서울스태이지 2024 ‘ROCK-A-BILLY’
무드멜츠
9월 18일 | 청계천
40분

1960년대 미국 디트로이트를 기반으로 발전한 로커빌리 음악과 뉴올리언스 재즈 스타일을 접목한 록&재즈 사운드를 추구하는 무드멜츠가 시원한 무대를 준비했다. 전매특허인 시원시원한 사운드와 무대 매너를 보여주며, 6인조 빅밴드의 풍성한 사운드로 대중에게 익숙한 로큰롤부터 밝고 경쾌한 스윙재즈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국내 공모(자유형)
OffOn 연희해체프로젝트II
리퀴드 사운드
9월 17·18일 | 무교로
1시간

전통 연희의 몸짓이 현대무용을 만나면 어떻게 확장될까? 리퀴드사운드의 두 번째 연희해체 프로젝트로, 악기·부포·상모 등 오브제를 액세서리처럼 착용한 연희자(무용수)는 조명기에 둘러싸인 원형 공간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전통 연희를 변형한다. 전통과 현대, 연희와 무용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드는 미니멀리즘 공연.



해외 공모 | 일본
도시에서 살아남기! Survival in the City!
컴퍼니 스쿠프
9월 17·18일 | 무교로
25분

우스꽝스럽고 흥미진진한 거리 공중 신체 퍼포먼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기 드문 사건으로 가득하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필사적으로 생존하려 애쓰는, 하얏고 폭신한 털을 가진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돌아다니며 춤을 춘다.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일까?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야 할까? 어디로 숨어야 할까?



해외 공모 | 스페인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 Nobody is (not) perfect
에스더 엘렌
9월 16·17·18일 | 청계천·무교로
20분

무대 위의 문화와 움직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에스더 엘렌과 다양한 춤 스타일의 다국적 무용수들이 모여 새로운 것과 전통 사이의 경계를 탐험한다. 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른다. 하지만 목표에 도달한 다음은?



해외 초청 | 캐나다
롤리와 첼로 Wheels & Cello
르 파탱 리브르
9월 16·17·18일 | 청계천·무교로·서울광장
30분

네 명의 피겨 스케이터와 한 명의 첼리스트가 아스팔트 위에서 롤리스케이트를 타고 미끄러지는 활주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한다. 컨템퍼러리 스케이팅 예술 단체 르 파탱 리브르는 여름이면 특별히 스케이팅 날을 바퀴로 바뀐 거리를 자유롭게 누빈다. 첼로 연주와 함께 펼쳐지는 춤의 기쁨을 만끽해보자.



해외 공모 | 스페인
테이 테이 Tei Tei
에밀리아노 알레시
9월 16·17·18일 | 무교로
40분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에밀리아노 알레시는 공연과 축제에서 다양한 서커스 팀과 협업하고 있다. 이번 작품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상상의 다리로 연결된다는 아이디어로 만든 게임 같은 공연이다. 관객과의 호흡으로 완성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해외 초청 | 영국
슬링키 대소동 Big Mob Slinky
베들렘 오즈
9월 16·17·18일 | 무교로
30분

유연한 슬링키(용수철 형태의 장난감)들이 펼치는 퍼레이드. 유쾌하고 우아한 공연으로 공간에 생기를 일으키는 거리 극단 베들렘 오즈가 찾아온다. 슬링키들은 여러 안무로 관객과 소통하는 작은 쇼를 펼친다. 글래스턴베리 하이라이트 쇼와 버킹엄 궁전에서 열린 여왕 기념식 등 세계 각지에서 선보인 작품.



해외 공모 | 핀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
트래쉬페즈 Trashpeze
와이즈 폴스
9월 17·18일 | 서울광장
30분

한 명은 공책에 몰두하느라 나서길 꺼리고, 다른 한 명은 에너지가 넘쳐 과하기 일쑤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멋져 보이며 애쓴다. 셋의 유일한 공통점은 바로 좋은 농담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공연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에도 함께 일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한다.

ASSOCIATED

- 예술가의 진심
- 뮤지컬 배우 김호영, 예술적 환상 이면의 진심
- 예술인 아카이브
- 정현
- 조우정
- 페이퍼로그
- 홍보마케팅팀 김은지
- 인사이드
-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 쿼드초이스-입과손스튜디오
- 트렌드
- 파리 올림픽&코리아시즌리포트

뮤지컬
배우
김호영, 예술적
환상

이면의
진심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열정적으로만 연기하고 산다는 건 거의 오해다. 열정은 열정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냉정의 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그가 보여준다. 김호영은 무대 위에서 뜨겁게 연기하지만, 애드리브 거의 없이 철저한 계산으로 관객을 쥐락펴락한다. 연기에 대한 ‘진심’이 제 길을 갈 때, 열정과 냉정은 그렇게 궁극에서 조우한다. 8월의 뜨거운 여름날 대학로에서 만난 김호영은 청량했다. “제가 무대 위에서 되게 뜨거워 보이기는 하나 의외로 굉장히 차갑게 식어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순간순간 잘 인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장기가 발휘된 작품 중 하나가 뮤지컬 〈광화문연가〉의 ‘월하’ 캐릭터였다. 주인공 명우의 시간여행 안내자이자 극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미스터리 캐릭터다. “월하 같은 캐릭터를 맡을 때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성적인 걸 많이 꼬집어내려고 했어요.” 물론 뮤지컬 〈킹키부츠〉의 ‘찰리’, 〈렌트〉의 ‘엔젤’을 연기할 때도 감성적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했다. “나 혼자 좋아서 끝내는 공연으로 가면 안 되니까”라는 이성적 판단 때문이다.

9월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여섯 번째 시즌의 막을 올리는 〈킹키부츠〉는 김호영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2002년 〈렌트〉로 데뷔해 2016년 이 뮤지컬의 재공연에 출연하기 전까지 김호영은 공연계에서 중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편이었다. 뮤지컬 〈갬블러〉, 〈라카지〉, 〈프리실라〉와 연극 〈이뿔〉에 여장남자로 출연, 한때 ‘여장남자 전문 배우’로 불렸다.

이로 인해 ‘연기 좀 한다’는 세간의 평이 묻혔다. 하지만 사실은 언젠가 고개를 내민다.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의 섬세한 ‘몰리나’,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에서 코믹 연기 정점을 선보인 ‘산초’, 그리고 작심하고 이미지 변신을 위해 선택한 〈킹키부츠〉에서 성장 드라마를 보여준 구두 회사 사장 ‘찰리’ 등은 김호영이 아니면 내면을 꼬집어내기 힘든 캐릭터였다.

“찰리는 오디션에 응시할 때부터 남다른 각오가 있었어요. 저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때였거든요. 그런 점이 온 좋게 캐릭터랑 잘 맞아떨어졌어요. 2022년에 부상을 입은

배우를 대신해 갑자기 〈킹키부츠〉에 투입됐을 때도 혼자 연습해서 차질 없이 공연할 정도로 아끼는 작품이죠. 연습할 때 별명이 ‘인간 바이블’이었어요. 제가 맞춰보지 않아도 잘할 거라고 배우들 모두 믿었다네요. 하하.”

김호영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따라오는 에너지는 건강한 밝음이다. 애칭 ‘호아^{ho}oy’를 따서 누구든 무장 해제시키는 에너지를 ‘호이스럽다’고 표현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각종 TV 예능, 홈쇼핑 등에서 보여준 생기발랄한 표현력도 그런 이미지에 한몫했다. 그런 에너지 덕에 작품에서 김호영만 보인다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왔다.

한 발 앞선 트렌드 리더, 두 발 앞선 김호영
하지만, 이 역시 오해다. 그의 활발한 에너지는 시대를 앞서가는 작품을 고르는 선구안으로 치환된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국내 초연한 음악극 〈베로나의 두 신사〉. 김호영은 이 작품에서 정의감에 넘치는 베로나의 로맨틱 가이 ‘밸런타인’ 역을 맡았다. ‘어른들의 동화’로 통한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 온갖 작품의 특징이 녹아든, 기상천외한 유머 감각의 작품이었다. 하지만 당시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황당할 만큼 코믹 요소를 갖고 있는 작품인데, 최근 대학로에서 인기를 누린 뮤지컬 〈난쟁이들〉의 기법을 그 당시 이미 선보였던 거예요.” 2009년 동성 간 사랑이 정상인 가상의 세상을 소재로 한 뮤지컬 〈자나, 돈트〉에서 맡았던 ‘자나’ 역시 진보적인 캐릭터였다.

“사람이 한 발 혹은 반 발만 앞서면 리더가 되는데, 두 발 세 발 앞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후자인 경우예요. 한 발만 앞서가면 되게 리더 같고 ‘저 사람 굉장히 트렌디하다’고 인정받지만, 두 발 세 발 앞서가면 사람들이 기억도 못 해요.”

다양한 분야에서 김호영이 앞서가는 경험이 반복되다보니 그의 주변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호영아 너 지금 뭐 하고 싶니? 그걸 2년 뒤에 하면 대박이 날 거 같다!”

김호영은 또 앞서간 한류 뮤지컬 배우이기도 했다. 그가 여장남자 쇼걸 ‘지지’를 맡은 뮤지컬 〈갬블러〉가 2005년 한 달 동안 일본 9개 도시 투어를 돌며 큰 호응을 얻은 것. 당시 공연은 일본어로 진행했다. 극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지지 덕에 매번 공연장의 수은주는 가파르게 올라갔다.

“우리고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듯이 일본 역시 지역마다 억양이 달라요. 통역하는 분한테 계속 해서 뉘앙스를 물어보고 지역마다 다르게 시도했어요. 현지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소름까지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쇼적인 이미지에는 물론 양가적인 면이 있다. 김호영이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텐션이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다보니 업계 내에선 배우로서 그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대신 김호영의 상업적 가치를 인정하는 예능 프로그램, MC, 홀쇼핑,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그를 찾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드라마·영화에서도 극을 환기할 수 있는 카메오 출연 제안을 많이 한다. “사실 카메오는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역이잖아요. 대중 사이에서 인지도가 있는 어떤 누군가가 해도 되는 역할이죠.”

하지만 현 상황을 답답해하기보다 객관화하는 게 또 김호영의 장기다.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저에 대한 이미지가 아무래도 어느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서 찾아주시는 게 어렵지 않을까 사실 느껴요. 저를 편견 없이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 〈햄릿〉의 햄릿, 〈갈매기〉의 코스차로 절 섭외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제작자들이 많지는 않겠죠. 이런 상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교차로에서 있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좌표를 명확하게 하는 이는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 김호영은 “현명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무기와 장기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요. 그러다보니까 배우로서 혹은 방송인으로서, 쇼호스트로서 혹은 예능인으로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죠. 그래야 제가 더 일을 생산적으로 잘할 수 있거든요.”

뮤지컬 배우, 단단한 나의 뿌리

하지만 김호영의 뿌리가 배우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그는 배우 중에서도 ‘뮤지컬 배우’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김호영은 뮤지컬 배우로서 다진 끼와 능력으로, 다른 영역의

재능에 흥미롭게 도달한다. 뮤지컬이라는 장르 본체가 갖고 있는 다양성의 특질이 어떤 영역과도 접점을 이루기 때문이다.

“제가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팝^{pop}한 노래든, 클래식한 노래든, 트로트든 장르 구분 없이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맞다. 저 사람 원래 뮤지컬 배우지’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서예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저는 스스로를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라고 소개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해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함의가 생긴다고 할까요. 제 중심이 분명히 뿌리내려 잡혀 있으니까, 뭘 해도 중화되는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뮤지컬로 인한 파생 효과는 이뿐만 아니다. 홀쇼핑에서 클렌저 같은 화장품을 소개해도 20년 넘는 뮤지컬 배우 경력이 믿음을 준다. “제가 뮤지컬 배우로서 무대에 수차례 오르며 얼마나 많은 두꺼운 화장을 해 봤겠어요. 화장 지우는 것에 얼마나 도가 났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다 납득이 되는 거죠.”

패션에서도 마찬가지다. 뮤지컬 배우들은 누구보다 화려한 의상을 소화해야 한다. 특히 성별을 가로지르는 독특한 캐릭터를 많이 맡은 김호영은 기상천외한 스타일의 옷을 다수 입어봤다. “패션 쪽으로 굉장히 이해가 깊다”는 것이다.

뮤지컬 배우로서 역량은 방송가도 자연스럽게 주름 잡는다. 라디오DJ를 맡았을 때는 정확한 발성으로 주변을 놀라게 했다. MBC TV 예능 프로그램 〈심야괴담회〉에선 사연을 구연동화처럼 전해야 하는데, 뮤지컬 배우는 상황을 극대화해서 실감 나게 전달하는 데 최적화된 이들 아닌가.

“뮤지컬 배우로 일을 시작했고 뮤지컬 배우로서 어떤 걸 계속 놓치지 않고 있는 점이 지금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시너지를 내고 있죠.”

김호영은 이런 예술의 힘을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심어주고 있다. 2021년부터 예술

후원금을 모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 캠페인을 돕고 있다. 학창 시절 각종 청소년 연극제에 나가서 좋은 경험을 쌓은 김호영은 또 작년엔 제8회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 홍보대사로 활약했다. 한편으론 절친한 연출가 이태린이 9월 무대에 올리는 연극 〈시물라시옹〉이 더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관객과의 대화 사회자를 자청하기도 했다.

“제 친구인 걸 떠나서 좋은 예술가들이 더 소개됐으면 해요. 일단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현장에 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림은 갤러리에 가서 봐야 진가를 알 수 있고, 공연 역시 공연장에 와야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제가 예술을 알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객들과 직접 만나는 현장도 찾는다. 9월 25일 열리는 서울스테이지 2024 ‘김호영의 호이쇼’도 그중 하나다. 폭넓은 예술·연예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해 예술가로서 김호영의 목표와 삶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다. 무엇보다 그가 품어온 ‘예술가의 진심’을 꺼내놓는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기반 삼아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했다. 예술가 혹은 창작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건 다들 알 거라는 생각에서다.

“나 배우가 되고 싶어’, ‘예술인이 될 거야’라는 건 꿈이었고 환상적인 일이었지만, 실제로 프로 무대에 데뷔해서 공연을 올리고 계속 일하는 건 현실이에요. 현실은 곧 ‘생계’와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예술가로서 어떻게 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예술가가 멋져 보여서, 내지는 한 번쯤 해 볼까 싶어 뛰어들 만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현실적인 얘기가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예술가도 무엇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화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다.

항상 밝고 쾌활하며 환상 속에 살아가는 듯한 김호영은 이처럼 예술의 길이 아닌 이면의 진심을 들여다볼 줄 안다. 예술은 관객을 감동하게 하지만, 때론 현실을 얼어붙게 한다. 그걸 녹이는 건 냉철한 판단과 함께 예술을 도구가 아닌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진심이다. 그 예술의 진심이 또 유연하다는 걸 김호영은 누구보다 잘 안다.

“제 말의 전제는, 제가 다 맞다는 게 아니예요. 사람마다 삶이 다르고,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요. 제 경험은 이러하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몇몇 분이라도 제 이야기로 인해 자신을 재점검한다면, 그때만큼 진심이 통하는 순간도 없겠죠.”



정헌

음악/클래식 음악

b.1982

@hun.chung.conductor

2020년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

2024년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개막 공연 지휘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고, 오래된 것,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가치 있게 생각하며 고전을 동경하는 음악가입니다. 서양음악의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고자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났고, 10년간 체류한 세월과 경험이 저의 음악적인 바탕과 자양분이 됐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Kunstuniversität Graz 오케스트라 지휘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친 후, 2018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부지휘자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최종심까지 올랐고 그때의 좋은 성적으로 다섯 번 객원 지휘를 맡으며 한국에 데뷔했습니다.

유럽에서 지휘를 공부하며 과연 내가 지휘자가 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독일 콘스탄츠 남서독일필하모닉 Südwestdeutsche Philharmonie Konstanz과의 공연이 있었는데, 리허설 중간에 많은 연주자들이 제 음악과 지휘를 좋아해주며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렇게 유럽 한가운데서 그들의 전통인 클래식 음악을 지휘하며 교감하고 인정받으며 나의 예술, 즉 지휘는 함께하는 즐거움이라고 자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작품·공연은 상임지휘자로 재직할 목포시립교향악단의 2022년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공연입니다. 지방 시립교향악단의 현실적인 한계가 물론 존재했지만, 열정적으로 음악계와 목포시에 호소해 10년 만의 교향악축제 초청을 성사했습니다.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예술·기술적으로 고난도의 작품을 선택해 성공적으로 공연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3년간 목포시향에 재직하며 부산·대구 등에서 공연했고, 지방 시향 최초로 ARKO 한국창작음악제를 개최해 음악계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목포시향 창단 40주년 기념 공연에선 말러 교향곡 5번을 성공적으로 연주해 ‘한국의 관현악에서 벌어진 비상한 현상’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서두에도 소개했듯이 고전을 동경하며 빛바랜, 오래된 것을 소중하게 바라보며 영감을 받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유학 시기에 고음악가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Nikolaus Harnoncourt의 리허설을 참관하며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과 그 열정에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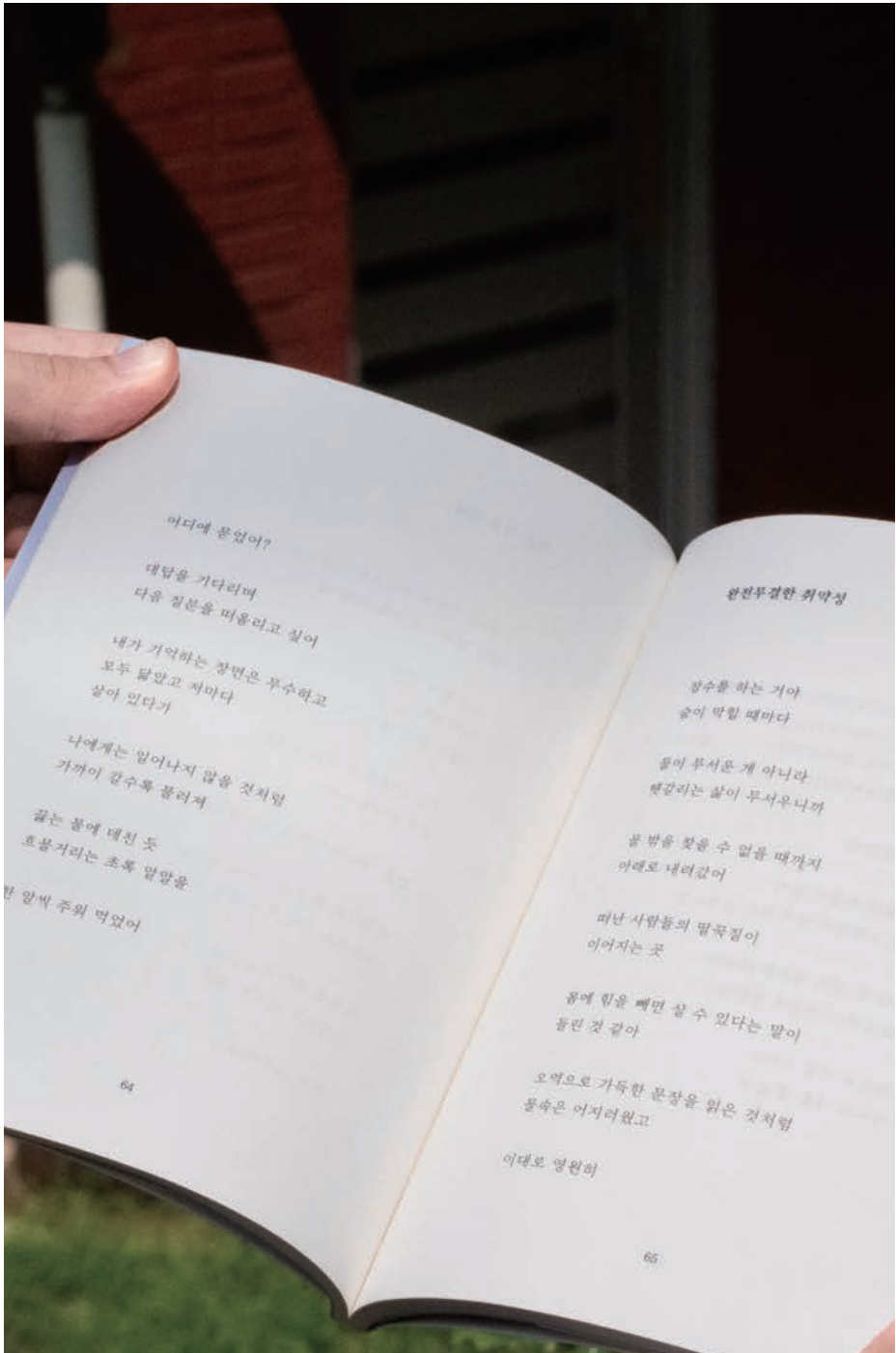
최근에 영화 두 편을 감명 깊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1964년 프랑스 영화 <쉴부리의 우산>으로,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감각적인 연출과 색감이 쏟아지듯 일렁이는 감정선을 표현해줍니다. 결국 아련하고 뜨거운 감정으로 전체를 마무리하며 마치 한 호흡 안에 클라이맥스를 가두듯 끝나버립니다. 독특하게도 모든 대사가 노래로 된 ‘오페라 영화’ 장르로, 귀히디귀한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1984년 이란 영화 <달리는 아이들>로,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중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상황을 전혀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단지 아이들의 척박한 삶 자체를 조명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과 현실을 긍정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는 보배로운 마음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두 작품 모두 전쟁 중에 처한 각자의 삶을 깊이 들여다본 작품이네요. 현재 우리의 삶은 그때보다 풍요롭지만, 정서적으로 궁핍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간과 시간에 예술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9월 28일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개막 공연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동행오케스트라’의 이름으로 시민 연주자를 모집했고,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인천시립교향악단·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각 악단의 악장과 수석 선생님들이 하나가 돼 무대를 만듭니다.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생활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생활이 되는 행복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공연과 작품이 저, 그리고 함께하는 예술가와 감상자에게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2023년 군포시민합창단 송년음악회에서 리허설하는 모습





조우정

문학/시

연희문학창작촌 2024년 입주작가

“청년에비작가로 연희문학창작촌에 입주한 조우정입니다. 등단하거나 개인 창작집을 발간한 적은 없지만 시 학회에서 문집을 제작한 경험, 문예지나 신춘문예 등 여러 곳에 시를 투고한 경험을 토대로 이곳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연희문학창작촌에서 보내며 그동안 읽어본 적 없는 많은 글을 읽고, 써본 적 없는 많은 글을 쓰겠다는 당찬 포부로 입주했는데요, 현재 직장 생활과 창작을 병행하고 있어 침대에 누워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많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아침마다 연희문학창작촌에 사는 수많은 매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출근하는 시간이 앞으로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계속 읽고 쓰고 싶습니다.”

“‘쓰기’와 ‘처음’에 대해 떠올리면 9살 무렵 일기장을 펼쳐두고 뽀족하게 깎은 연필을 손에 쥔 채 울었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속상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꾸지람을 들은 것도 아니고 단지 일기 쓰기 숙제를 하기 싫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 들통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기인한 감정이 아니었을지 추측해봅니다. 이후 일기장에 그림을 그려도 되고 시를 써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매일 일기를 쓸 정도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해방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쓰기 힘들다는 마음이 다시 들면 무언가 들통날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닌지 되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시작돼 자꾸만 반복되는 불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로 선정됐을 때, (스스로 예술가가 됐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연희문학창작촌 소설미디어 계정에 작업이 소개되고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목소리가 전해지는 경험을 하면서 작가라는 자각은 외부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창하고 비장할수록 예술에 가까워진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지,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이 과정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동떨어져 숨어 있는 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질문을 건네는 글을 쓰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희문학창작촌 소설미디어에 시가 소개됐는데요. 방울토마토와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한 ‘작은 죽음 면담’은 비슷한 이유로 반복되는 죽음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일이 가장 내밀한 곳에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순간을 앞에 두고 면담하는 것처럼 질문을 건네고, 대답을 기다리는 화자가 그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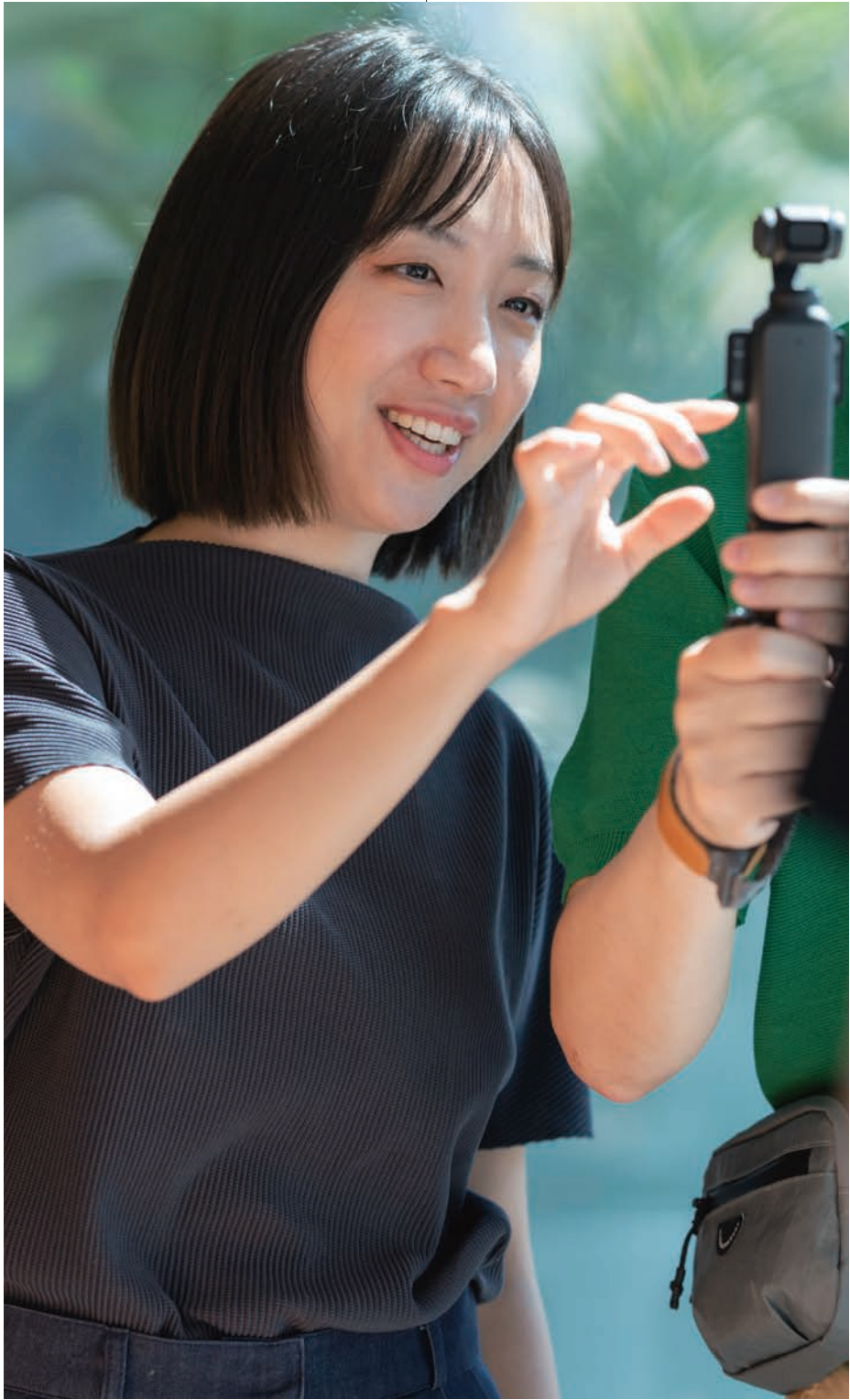
“시 학회에서 활동할 때는 각자 골라온 문장이나 단어 중 하나를 놓고 시를 창작하곤 했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시작해도 전혀 다른 시가 되는 경험이 재미있어 열심히 시를 썼습니다. 혼자 시를 쓸 때는 책을 읽으며 기록해둔 문장이나 일상을 살아가며 생겨난 질문에서 주로 시작합니다. 전시를 관람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업 방식을 보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문집을 준비한 작년 하반기에는 혼자 있는 공간에서만 글을 쓰는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나고자 사람들로 웅성거리는 환경 속에 저를 두고 글을 써봤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쓰는데 따라 또 다른 글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며 창작하고 퇴고했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일은 매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혼자 있거나 함께 있거나 비슷한 속도로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올해 만난 책 중에서 에스텔 비용 스파놀Estelle Billion Spagnol의 『뚝, 딱』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태어나 돌도 없는 친구가 된 뚝이와 딱이가 등장합니다.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던 둘은 잠시 떨어지게 되는데요. 서로의 부재 속에서 뚝이와 딱이가 보낸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잠시 떨어져 있을 때 불안하고 외롭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이들에게 건네고 싶은 책입니다.”

“현재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기획자로 근무하며 다양한 기술을 접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을 활용한 창작 작업 혹은 기술을 활용한 작업을 하는 작가와 협업해보고 싶습니다. 작년부터는 소리를 활용해 오디오 비주얼 작업을 하는 작가들에게 관심을 두게 됐는데요. 이런 작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가볍게 배우는 수업을 수강하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프로그램을 배우며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홍보마케팅팀 김은지 전이되는 긍정 에너지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홍보마케팅팀 김은지입니다. 2019년1월 입사해 벌써 6년 차네요. 대학 시절을 돌아켜보면, 하고 싶은 것도 알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경험이 자산이라고 생각했죠. 연예 기획사에서 돈 한 톨 받지 않고 공연을 만들거나, 패션 웹진 에디터로 일하기도 했어요. 이후 광고 대행사 인턴을 시작해 MD·마케터 등 여러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노력했구요. 일을 하는 데 있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더라구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서울문화재단에서의 업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 시절 잠시 재단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데 당시 기억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때 진로 상담을 해준 선배가 지금의 팀장님이기도 합니다.(웃음)

커머셜 분야에서 광고·마케팅 업무를 하다 공공기관에 입사한 이유가 궁금해요. 처음엔 늘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일하다보니 가치 면에서 충동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잘 팔려야만 좋은 광고·마케팅 전략으로 인정받고, 저 스스로는 설득되지 않는 지점을 어필해야 하는 때도 많았구요. 그보다는 사회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 동료, 예술가들과 머리를 맞대 사업을 설계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더욱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고민하는 것, 재단에서 하는 업무 대부분이 제가 원하는 일에 가까웠죠. 무엇보다 저는 여전히 문화예술이 주는 힘, 아름다움, 가치를 믿거든요.

입사 직후 예술지원 업무를 맡아 진행했어요. 재단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예술지원팀은 일 년 내내 아주 바쁜 부서 중 하나입니다. 매년 가을이면 다음 해 공모를 시작하고, 연말이면 내년도 심사와 당해 사업 정산을 동시에 진행해요. 공모 결과가 발표되면 숨 돌릴 새도 없이 바로 이듬해 사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요. 여러 시점의 업무가 동시에 돌아가기도 하고, 예술가의 한해살이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책임감도 막중하답니다. 예술지원정책팀으로 옮긴 후에는 신설된 서울예술상 운영을 담당하기도 했어요. 처음 사업을 설계하고 심사와 시상식까지 진행하며, 하나하나 공들인 기억이 생생합니다.

현재 서울문화재단 인스타그램 운영을 맡고 있다고요. 2023년 11월 홍보마케팅팀으로 발령받아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채널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요. 최근 유튜브 채널과 영상 콘텐츠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 밖에도 코엑스 전광판이나 서울시청, 지하철 역사 등 외부 매체 광고도 담당하고 있고요. 온라인 홍보는 시의성이 생명이라 공연·행사 현장에 직접 나가는 경우도 많은 편이에요. 현장에서 곧바로 릴스 같은 숏폼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기도 하고요. 요즘은 재단 사업을 더 쉽고 재밌게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 기관과 콜래보레이션하거나, 유쾌한 밈을 활용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채널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적장을 것 같아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구독자 6만 명 돌파 기념으로 밈을 활용한 재밌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거든요. 평소 대비 ‘좋아요’ 수도 폭증했고, ‘공공기관 공식 채널 맞냐’, ‘영상 보러 다시 왔다’ 등 열띤 반응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재단을 대표하는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부담도 있지만, 이렇게 실시간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 그만큼 만족감도 큰 업무입니다. 또, 재단 사업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간접적으로나마 재단 사업 전체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온라인 홍보 담당자는 어떻게 ‘워라벨’을 유지하나요. 역설적으로 ‘워라벨’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워라믹’, 즉 워크 라이프 믹스work-life mix에 가깝달까요. 유행하는 릴스를 넘겨보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곤 하는데요. 다행히 이런 점이 제게는 즐거움이라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노력하는 점이라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편입니다.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가나, 뭐든 ‘나’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우리 삶에 예술이 깊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찾은 만남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릴 때의 공연·전시 경험, 축제를 즐긴 기억 등이 모여 일상에 문화예술이 자리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해 프랑스 루앙에서 열리는 거리예술축제 ‘비바 시테Viva Cité’에 다녀왔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에서 어우러져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일상처럼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문화예술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정말 부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잘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을 만드는 것이 문화예술 기관의 책임과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예술 행정가로서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있나요. ‘진심은 통한다!’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더라고요. 일하다보면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이해하기 힘든 지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도, 예술도 정답은 없거든요. 무작정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통할 때가 많아요. 진심과 진심이 만나면,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마련 아닐까요?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해볼까요. 사람들과의 대화요. 시시콜콜한 일상 대화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마주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멋진 취향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 이들이 추천해주는 음악이나 재밌는 영상, 트렌디한 콘텐츠에 많이 의지하는 편이에요. ‘맞춤형 디깅’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같은 것을 보고, 함께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나누다보면, 경험의 폭이 한층 확장되는 기분이 들어요. 동료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동료들에게 늘 배우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져요.

스무살 서울문화재단에 축하 인사를 건네주세요. 올해 2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며 재단의 지난 20년을 자료로 돌아본 기억이 나네요. 스무 명 남짓 모여 출발한 재단이 이제 300명 직원이 함께 일하는 규모로 성장했다니, 아주 놀라울 따름이에요. 사람에게도 스무살은 인생의 분기점과 같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멋지게 성장해왔듯, 서울 시민과 예술가들에게 더욱더 의미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 일원으로서 앞으로 더 멋진 모습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시각예술의 교차로에서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금천예술공장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서울을 대표하는 시각예술 분야 창작 레지던시로 자리매김해왔다. 이곳은 예술가들이 거주하면서 다양한 예술 실험과 창작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예술가의 작업 과정이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지만, 일 년에 단 3일 ‘오픈스튜디오’라는 특별한 행사로 모든 이들에게 창작 공간을 공개한다.

‘비하인드 더 하이라이트’ 표상과 이면이 교차하는 곳 ‘비하인드behind’는 원래의 이야기나 작품의 뒷면에 가려진,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폭넓게 지칭한다. ‘하이라이트highlight’는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강조되고 주목할 부분을 나타낸다. 영화·소설 속 한 장면을 의미하는 ‘신scene’은 이러한 비하인드 신과 하이라이트 신으로 이뤄져, 그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떨 수 없는 한 쌍이 된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 하이라이트 신에 잠식당하면서 점차 무력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같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의 장점이 가볍게 소비될 수 있다는 단점으로 변질돼, 표상 이면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발견하려는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허상에 시선을 뺀 틈 사이 숨겨진 이야기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번 오픈스튜디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강조하며, 일반적인 전시 공간처럼 완성된 작품이나 예술적 성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창작 과정이나 작품 이면에 가려진 뒷이야기를 함께 전달하고자 한다. 예술가와 관람객이 마주해 공유하는 공감각적 경험이 곧 ‘비하인드 스토리’이며, 그 출발점을 시작으로 함께 도착한 곳이 내러티브를 갖춘 ‘하이라이트’가 됨을

시사한다. 우리는 비하인드와 하이라이트가 맞닿아 있는 금천예술공장을 교차 공간으로 설정해 ‘망막’에 감혀 있는 환영을 걷어내고 실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한다.

창작의 모든 것, 오픈스튜디오에서 만나다
이번 오픈스튜디오는 창작 과정과 이면, 결과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기회를 제공한다. 15기 입주작가의 오픈스튜디오 개막 행사는 9월 5일 오후 5시 금천예술공장 창고동에서 열린다. 정정호는 금천구의 지역 민속과 신화적 사고를 재조명한 영상 작품 〈민음의 지형학〉을 선보이며, 전통과 현대 도시로서의 지역적 가치를 독특한 시각으로 표현했다. 장진승은 금천예술공장 공간을 3D 스캔해 데이터를 취득한 후, 이를 이미지와 사운드로 변환한 다감각적 사운드 기반 미디어 퍼포먼스 〈Tract Tracing (57B15GDSEO)〉을 준비했다. 요한한은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참여하는 퍼포먼스 연계 공연 〈페르쿠스〉를 진행한다. 브라질 삼바 밴드와 협업해 타악기 오브제를 활용한 합주 공연이다.

6일과 7일에도 예술가가 직접 기획한 시민창작 워크숍이 마련됐다. 예술가가 직접 기획하고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의 창·제작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작가의 작품 연구 방법이나 페인팅 기법을 체험해볼 수 있다.

이번 오픈스튜디오는 예술가가 완성된 작품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두에게 공유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두 가지 개념이 얹혀 있어 마치 교차로의 한가운데에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함께 알아가는 기회를 통해 진정한 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픈스튜디오
《비하인드 더 하이라이트: 교차하는 장면들》
9월 5일부터 7일까지
개막 행사 9월 5일 오후 5시, 금천예술공장 창고동



매해 달라지는 금천예술공장 풍경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은1호선 독산역 1번 출구에서10분 정도 걸어가다보면 도착하는 공간이다. 나는 지하철역에서부터 금천예술공장까지의 멀지 않은 이 길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마을버스 차고지와 초등학교, 아파트를 비롯해 장난감 공장, 전자부품 제조 업체, 식료품 기계 공장 등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조합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천예술공장은 이곳 풍경에 ‘동시대 미술’이라는 다이내믹을 더하고 있다. 과거 인쇄소였던 건물을 서울문화재단이 2009년 리모델링해 매년10여 명 예술가가 입주할 수 있는 레지던시로 만들었고, 이곳의 입주작가는 일정 기간 작업을 위한 스튜디오와 다양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미15년간



운영된 곳이라 오가는 길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매년 입주작가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간이 지니는 에너지가 달라진다. 그래서인지 매년 금천예술공장까지 다다르는 발걸음도 덩달아 새로워지는 기분이다.

오픈스튜디오는 일 년에 한 번 금천예술공장이 모든 문을 활짝 열어 두는 날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다수의 작가가 작업과 연관한 개인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기에 외부인의 출입이 평소에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오픈스튜디오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모든 입주작가가 각자의 스튜디오에서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자유롭게 자리하며 손님을 맞이한다.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작가16명(팀)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흔치 않은 기회인 것이다.

2024년 오픈스튜디오에는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예술가의 방, 실험 프로젝트 등 다양한 볼거리가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그중 필자가 기획자로 참여한 기획전시는3층 전시실 PS333에서 열린다. 입주 작가14명이 참여해 그들의 대표작은 물론 그간 잘 소개되지 않은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오픈스튜디오와 전시는9월 24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사람과 시간의 흔적

기획전시의 제목은《루나 이펙트: 거울과 돌,

↑ 장보윤, 〈스틸로드에서 01〉, 2011, C프린트, 40×60cm(ed. 1/8)
← 유화수, 〈재배의 몸짓〉, 2024, 우레탄, 스마트팜 시스템, LED, 가변 크기

컵 자국으로 만든 별자리》로, 참여 작가들의 공통분모를 담아낼 수 있도록 지었다. ‘루나 이펙트Lunar Effect’는 지구를 공전하는 달의 주기, 즉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현상이 사람의 행동, 심리 상태, 생체리듬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나타내는 말이다. 흔히 ‘보름달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변화하는 달의 형상과 달빛의 양 등이 인간의 특정한 기질에 영향을 준다는



↑ 정정호, 〈우리가 그날 밤 본 별을 기억해〉, 2023, 피그먼트 프린트, 60×40cm(ed. 1/7)
↓ 최은경, 〈발길 따라 유유히 2〉, 2021, 캔버스에 유화, 145.5×224.2cm

→ 정아름, 〈숲길: 자아실현을 위한 출구〉, 2013, 캔버스에 유화, 193×260cm



오랜 믿음을 일컫는다. 그리고 최근 확인되고 있는 심해 생물의 생장과 달 주기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실적인 분석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전시를 통해 달이 떠오르는 아간의 시간대, 심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작자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연결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눈앞에 존재하는 원시적이고 신비로운 내용의 작품들을 쉽게 소개하고자 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보이지 않던 이면, 소외된 부분을 발견하는 작가들의 시각을 강조하고자 한다.

부제인 ‘거울과 돌, 컵 자국으로 만든 별자리’는 참여 작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매체와 작가들의 태도를 상징하고 나열한 것이다. 이번 전시의 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금천예술공장 스튜디오에서 작가들을 일대일로 만나는 과정에서 필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랜 시간 쌓인 공간의 흔적이었다. 커다란 작품을 계단으로 옮기면서 벽에 남았을 기다란 자국, 스튜디오의 입주작가들이 거쳐가며 남은 바닥의 작은 구멍, 천장에 무엇인가를 달았다가 별처럼 남아버린 흔적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작가스튜디오를 비롯해 직원 사무실, 경비실, 회의실과 주방 등 공간에서 발견한 컵의 자국들이다. 완벽하지 않은 원형의 문장처럼 남겨진 컵 자국들은 금천예술공장을 거처간 사람들이 물이나 음료를 마시며 생긴 것이기도 하고, 손님에게 차를 내어주며 생긴 것이기도 할 것이다. 전시를

준비하며 작가들의 미스터리한 면모와 동시에 사람과 시간의 분명한 자취를 발견했고, 이것을 은유적으로 연결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다.

한편 선사 시대 거석에서 발견한 동심원 형태의 암각화를 ‘컵과 링 자국cup and ring marks’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컵 자국으로 별자리를 새긴 경우가 전 세계에서 다수 발견됐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이번 전시는 미지의 시간대에 존재한 예술,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상징, 인간이 만들어낸 흔적 등 다양한 맥락을 담고자 했다.《루나 이펙트: 거울과 돌, 컵 자국으로 만든 별자리》의 참여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을 주인공으로 드러나게 하거나, 건축·산업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소외된 부분을 바라본다. 객관적인 렌즈의 눈처럼 외부 세계를 관찰하고, 연결하고, 발견한다. 사실과 허구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이야기꾼이나 고대의 시간을 소환하는 소환술사처럼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내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산동 거리에서 금천예술공장으로 향하며 느꼈던 에너지가 구체적인 전시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이번 기획전시를 통해 오픈스튜디오를 마주할 관람객 또한 각자의 장면을 찾아보기를 기대한다.

기획전시《루나 이펙트:

거울과 돌, 컵 자국으로 만든 별자리》

9월 5일부터 24일까지(14일부터 18일까지 휴관)
금천예술공장 3층 PS333



시민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축제 서울생활예술 페스티벌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은 2022년10월, 팬데믹으로 움츠려 있던 시민의 일상 속 예술 활동에 활기를 되찾게 하고자 장충체육관에서 시작을 알렸다. 생활예술인1천여 명이 보여준 뜨거운 열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큰 무대를 통해 진한 감동을 선사했고, 오는9월에는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세 번째 축제를 맞이한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생활예술 관련 축제는 사실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이 처음이 아니다. 클래식 음악·춤 등 세부 장르에 집중해 즐기는 축제의 모습으로 오래전부터 시민과 함께해왔다.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위댄스페스티벌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대표적인 생활예술 분야 축제다.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의 전신이기도 하며, 많은 시민으로부터 오랜 시간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2022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은 장르의 벽을 넘어 다양한 생활예술인이 주체가 돼

이끌어나가는 축제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생활 속 예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동한다. 퇴근 후,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접어둔 채 삼삼오오 모여 신나게 춤을 추거나 한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나만의 공예 작품을 꾸준히 만들어보고자 잠깐 작업실에 방문할 수도 있다. 누구나 각자의 생활 속에서 예술을 향유하는 모든 것들이 ‘생활예술’ 활동에 포함되며, 언제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예술 가까이에서 정서적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

특히 ‘생활예술’에 관련 있는 활동 중 다수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때로는 뛰어넘어 폭넓은 예술적 경험에 도달하는 충분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동호회·동아리·소모임 등은 예술을 매개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활기와 충전을 얻는 대표적인 활동이다.

은 가족이 즐기는, 일상의 휴식 같은 예술 다가오는 가을,9월28일에 열릴 2024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은 지난2년간 축제 현장에서 추구해온 일상 속 예술에 대한 시민의 ‘회복’이라는 가치와 더불어 의미의 ‘다양성’을 한데 모아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포용의 축제로 만들 예정이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기획공연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선보인다.150여명 규모의 시민합창단은 지난1회 축제부터 지휘를 맡은 성악가 우주호를 필두로 전문성을 두루 갖춘 예술가들과 함께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정으로 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선정된 시민 연주자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동행오케스트라’로,100여명이 한 무대오르게 된다. 역동적이며 예술적인 지휘로

호평을 받는 지휘자 정현이 새롭게 합류한 이번 축제의 오케스트라 공연은 감동의 하모니를 가득 담아내려 한다. 특별히,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가 협연해 축제에 참여하는 오케스트라 단원과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기획공연 후 축제의 또 다른 막은 서울시25개 자치구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동호회의 공연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모에 선정된15팀의 동호회가 선보일 공연 무대는 신나는 스윙댄스, 홀라댄스, 스트리트댄스부터 국악, 밴드, 중창, 그리고 이색적인 브라질&쿠바 댄스 및 퍼커션과 함께하는 퍼포먼스, 마당극,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2년간의 축제보다 전시·체험 동호회의 야외 전시 부스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확대된다. 자치구 문화재단 및 구청 등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전시 동호회가 목공, 가죽, 업사이클링, 민화, 캘리그래피, 바느질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관련 체험 프로그램 또한 다채롭게 진행돼 많은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 외에도11월 중순 개관을 앞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에서 창단한 서울어린이취타대의 첫 무대도 앞두고 있다. 지난7월부터 첫 교육과 활동을 시작한 서울어린이취타대는 축제 현장에서의 퍼레이드 진행에 참여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더불어 축제가 끝난 뒤 생활예술에 대한 가치와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 달간 ‘서울생활예술주간’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25개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생활예술 프로그램과 함께 축제의 여운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9월28일에는 가족과 함께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생활 속 예술의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을 만끽하길 바란다.

전에 없던 새로운 연작 판소리 퀴드초이스- 입과손스튜디오

처지가 안되고 애처롭다. ‘불쌍하다’의 사전적 의미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1862년 소설 『레 미제라블 Les Misérables』을 발표했다. 19세기 프랑스의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문학 작품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해온 ‘처지가 안되고 애처로운’ 사람들을 비롯해 전 세계인의 공감과 사랑을 받으며 영원한 고전이 됐다. 시공간을 초월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엔 연극·뮤지컬 등으로도 꾸준히 제작돼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오기도 했다.

9월과 10월, 대학로극장 퀴드의 관객들은 불멸의 고전 『레 미제라블』을 판소리로 만날 수 있다. 판소리를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으로 국내외 관객에게 큰 사랑을 받는 입과손스튜디오가 소설 『레 미제라블』을 바탕으로 재창작한 완창 판소리 <구구선 사람들>과 토막소리 <오류의 방>이 연이어 무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대학로극장 퀴드는 극장이 주목하는 예술가와 작품을 ‘퀴드초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선보이며 호평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 ‘퀴드초이스’는 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전통·무용·연극 장르의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일환으로 입과손스튜디오를 초청해 한국판 레 미제라블의 완창 판소리-토막소리 연작 상연을 기획했다. 본 공연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연작 판소리를 관람할 기회이자, 2024년 한층 더 새로워진 한국판 레 미제라블을 변화무쌍한 블랙박스 극장에서 처음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24 퀴드초이스’에서 선보이는 이번 연작 판소리는 흥미로운 구석이 많다. 완창 판소리는 긴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소리꾼이 부른 토막소리를

→ ‘한국판 레 미제라블’ 판소리 <구구선 사람들>

모아 만들어진 것이라는 판소리 창작 과정의 가설에서 출발한다. 입과손스튜디오는 색다른 판소리 창작 과정 개발 프로젝트의 원전으로 소설 『레 미제라블』을 선택했다. 이들은 순서대로 토막소리 <팡틴>, <마리우스>, <가브로슈>를 창작했고, 이 토막소리들을 가지고 완창 판소리 형태의 <구구선 사람들>을 선보인 후 네 번째 토막소리이자 자베르가 주인공인 <오류의 방>을 추가로 창작했다.

입과손스튜디오의 이러한 시도 덕분에 우리는 서양 고전을 원전으로 삼아 동시대의 관점으로 창작된 판소리를 전통적인 판소리 창작 과정에 맞춰 즐길 수 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차근차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퀴드초이스’를 통해 연이어 두 작품이

퀴드 무대에 오르는 덕분에, <구구선 사람들>에서 들은 대목을 <오류의 방>에서도 찾아내거나 두 작품 속 연결된 등장인물을 유추하는 등 연작 감상의 재미도 덩으로 얻을 수 있다.

보증된 레퍼토리, 퀴드에서 재탄생
입과손스튜디오는 소리꾼의 ‘입’과 고수의 ‘손’을 뜻하는 이름으로, 전통과 창작을 오가며 다양한 작업을 해온 소리꾼과 고수가 함께하는 판소리 공동창작그룹이다. 전통예술의 동시대성 확보와 판소리 창작 과정 개발을 목표로, 판소리가 하나의 장르이자 고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구구선 사람들>(9월 24일부터 29일까지)은 원작 소설의 서사를 ‘세상은 한 척의 배’라는 설정 아래 판소리로 각색한 작품이다. 이른바 판소리로 재탄생한 한국판 레 미제라블이다. 작품의 배경은

온 세상의 축소판인 커다란 배 ‘구구선⁹⁹船’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불쌍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언제나 100에 가깝지 못하고 99에 그치고 마는 모자란 세상에 빚댄 판소리 속 세계다. 구구선의 엔진실에서 노역 중인 빵 도둑 ‘장쎄’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판소리에는 방미영(팡틴)·가열찬(가브로슈) 등 구구선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민중의 아픔을 풍자와 해학을 곁들여 전해온 판소리의 매력과 만나 시너지를 발휘한다. 원작의 방대한 등장인물 규모를 표현하기 위해 입과손스튜디오의 소리꾼 이승희·김소진과 고수 김홍식·이향하에 더해 배우 백종승, 기타리스트 김홍갑, 드러머 이우진이 출연한다.

올해 ‘퀴드초이스’로 선보이는 <구구선 사람들>은 신작이라 소개해도 무방할 만큼 기존 작품에 견주어볼 때 큰 변화가 있다. 주요 등장인물이 새롭게 추가되고 인물들의 전사^{前事}가 확장됐으며, 현대무용 안무가 밝녕쿨이 출연진의 움직임 지도를 위해 프로덕션에 합류했다. 또한 가수 이랑의 음악 ‘늑대가 나타났다’를 삽입해 작품의 메시지를 다채로운 방식으로 표현한다. 2022년 초연 이후 3년 차를 맞이하며 그간 더욱 어지럽게 변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와 질문을 담았다. 우리가 탄 ‘세상’은 지금,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문제가 되는 작품이다.

<오류의 방>(10월 3일부터 6일까지)은 <구구선 사람들>에서 단면적으로 그려진 인물 ‘자베르’의 생애를 집중 조명한다. 『레 미제라블』을 원작으로

한 많은 작품에서 자베르는 광적인 집착으로 장 발장을 집요하게 쫓는 악인으로 묘사됐었지만, 자베르 또한 부조리한 사회가 만든 불쌍한 사람 중 하나일 뿐이라는 시선에서 출발한다. <오류의 방>은 오류투성이인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안과 강박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오류를 용납하지 못하게 된 수사관 자베르가 사는 방을 의미한다. ‘오류의 방’에 함께 들어선 관객들은 이 혼란한 세상에서 절대적 선과 악의 구분이 가능한지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이번 공연을 위해 소리꾼 박상훈이 10월 5일,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박상훈은 <나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 10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고 MBC 드라마 <연인>의 삽입곡 ‘만주 자장가’를 불러 주목받고 있는 소리꾼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극장 무대에 데뷔한다. 이승희·김소진, 이승희·박상훈 페어의 서로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선택해 관람할 수 있다는 점도 대학로극장 퀴드에서 선보이는 <오류의 방>만의 백미. 또 다른 특징은 특별한 무대 구조다. 돌출형 무대 덕분에 관객은 인물의 어두운 내면과 그 변화 과정을 아주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극장을 떠난 후에도 머리에서 맴돌 전자음악과 판소리의 조합 또한 기대해도 좋다. <오류의 방>은 대학로극장 퀴드와 2024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협력작으로, 전 회차 영문 자막이 제공된다.

“불어라 불어라 어거여차 불어라. 불불불 불면은 새 세상이 온단다!” <구구선 사람들>이 노래하는 새 세상에 대한 희망이 여전히 필요한 요즘이다. 기술이 인류를 압도하는 시대에도 ‘불쌍한’ 사람들은 왜 사라지지 않는지, 사회는 왜 계속 ‘불쌍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온갖 질문이 머릿속을 떠다닌다면 올가을 <구구선 사람들>과 <오류의 방> 관람을 추천한다. 저마다 희미한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자베르를 주인공으로 창작한 토막소리 <오류의 방>

2024 퀴드초이스-입과손스튜디오
<구구선 사람들>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3·7시, 일 오후 3시
<오류의 방>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목·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3·7시, 일 오후 3시



먹고, 보고, 즐기는 한국 문화 파리 올림픽 & 코리아시즌 리포트

스포츠 선수들의 피, 땀, 눈물로 적신 2024년 프랑스 파리의 여름, 그 한복판에 또 다른 ‘핫 플레이스’가 있었다. 파리 중심부인 7구,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과 양궁 경기가 펼쳐진 앵발리드 광장 근처에 마련된 코리아하우스다. 3층 규모의 ‘화학의 집(메종 드 라 시미Maison de la Chimie)’ 건물 전체를 대관해 공연장·전시장·내부 정원·기자회견장·사무국 등으로 꾸민 공간은 올림픽 기간 내내 한국 문화를 알리는 거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2024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에는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16일간(개관식, ‘한국의 날’ 등 공식 행사 제외) 64,659명이 다녀갔다. 하루 평균 4천여 명이 방문한 셈이다. 대한체육회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 매년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해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되고 있는 ‘2024 코리아시즌’과 결합해 새롭고도 다채로운 한국 문화예술의 매력을 프랑스 파리에 전파했다.

실제로 7월 28일(현지 시각) 직접 방문한 코리아하우스는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한눈에 보기에 한국인보다 외국인 비중이 높았다. 온라인으로 예약한 뒤 입구에서 입장 등록을 거쳐야 했는데, 전체 방문객 중 한국인이 20%, 외국인이 8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의 각 공간에선 콘텐츠, 음악, 푸드, 패션, 미술 등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먼저 입구를 지나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넓은 방에서 코리아하우스 타이틀 스폰서인 CJ가 영화·드라마·K-팝 등을 망라한 K-콘텐츠 전시관을 운영했다. 이어진 문밖의 야외 정원으로 나가면 비비고·카스·파리바게뜨 등 브랜드가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렸다. 떡볶이·만두·맥주 등을 판매했고, 일찌감치 재료가 소진된 메뉴도 있었다. 이곳 정원엔 올림픽 경기를 생중계해주는 대형 스크린도 마련돼 대한민국 경기 때마다 열띤 응원전도 펼쳐졌다.

한복을 입어볼 수 있도록 한 한국관광공사 홍보관, 스포츠 스타 얼굴이 들어간 프레임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포토이즘 부스는 늘 붐볐다. 하이브와 협업해 조성한 K-팝 공간에선 그룹 뉴진스의 실물 크기 사진이나 엔하이픈·세븐틴 등의 공연 영상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기는 팬들도 많았다.

상설 전시관은 한국 고유의 매력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 체험관 한편에 마련된 《댓츠 코리아: 시간의 형태》THAT’S KOREA : The Shape of Time》

← 8월 1일 파리 코리아하우스 ‘한국의 날’ 행사의 한복 패션쇼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시는 한복·한지·소반 등 전통 요소로 관람객 시선을 끌었다. 2층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전시관은 우리나라 전통과 자연, K-팝, 게임 등을 주제로 미디어아트를 선보였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한국도자재단은 홍근영·고우정·맹목재·심다은·윤호준 작가의 도예품을 전시했다. 파리 시내의 북적임에서 잠시 벗어나 조용하게 한국적인 선과 여백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7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코리아하우스 2층 강당에선 국립발레단의 갈라 무대도 성황리에 열렸다. 발레 중주곡으로 꿈히는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백조의 호수〉, 〈해적〉 등 고전 발레뿐 아니라 소속 단원들이 한국적 요소를

활용해 창작한 컨템퍼러리 발레까지 뽐냈다. 관객들은 “새로운 발레를 발견했다”, “완성도가 높다”며 기립 박수를 보냈다. 사실 공연 전까지도 교민이 울지, 현지인이나 관광객이 울지, 객석이 채워지진 할지 모든 게 예측 불가였다. 그러나 기우였다. 하루 800석이 이들 연속 매진됐다. 당일 선착순 무료로 배포되는 표를 받기 위해 남녀노소·국적 불문 인파가 공연 3시간 전부터 줄을 서기도 했다. 파리에 거주하는 수자니는 “2016년 방탄소년단 BTS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화장품, 음식, 한복 등은 익숙한데, 더 많은 문화를 알고 싶어 발레 공연도 보러 왔다”고 했다. 그는 틱톡을 통해 코리아하우스 운영 소식을 접하고 친구와 함께 하루를 이곳에서 보냈다고 했다.



↑ 한국 음식을 맛보고 즐기는 사람들 © 대한체육회
← 국립발레단의 갈라 공연 중 강효형 안무 〈활〉 © 국립발레단
↙ 미디어아트가 펼쳐진 코리아하우스 K-콘텐츠존
©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날 국립발레단이 선보인 작품 중 가야금 연주와 함께한 〈계절:봄〉(안무 이영철), 장구를 비롯한 전통 타악기 장단에 맞춰 춤춘 〈활〉(안무 강효형)은 특히 한국적 색채가 짙었다. 강효형의 또 다른 창작 발레 〈호이랑〉도 조선 시대 효녀 이야기에서 모티프를 얻어 2019년 만들어진 작품인 데다 유려한 선을 그려내 서양의 클래식 발레와 차별화됐다. 공연을 관람한 현지인 니콜 베르고는 “기술적으로 훌륭할 뿐 아니라 음악·리듬·의상 등에 전통 요소가 섞여 흥미로웠다. 같으면서도 다른 발레였다”고 평했다.

8월 1일 ‘한국의 날’ 행사에선 한복 패션쇼, 한·불 청소년의 무용 공연 등도 열렸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시즌 프로그램은 프랑스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서 5월엔 샤틀레 극장에서 한국 댄스팀 ‘원밀리언’과 프랑스의 ‘포케몬 크루 Pokemon Crew’가 〈어반 펄스 업라이징 Urban Pulse Uprising〉을 선보이고, 6월엔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합창단이 창작오페라 〈처용〉을 공연한 바 있다.

올림픽 폐막과 함께 코리아하우스는 문을 닫았지만, 패럴림픽 기간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 Para Team Korea House’가 계속해서 파리의 한국 문화 열풍을 이어간다. 이곳에선 한국 장애인스포츠 정책을 알리는 전시관이 운영되고, 한국 전통놀이 체험 등도 가능하다. 8월 31일엔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으로 장애인 e-스포츠 대회가 열린다. 9월 7일과 8일에 발달장애인 단체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파리 살 가보 극장에서 ‘다양성을 넘어 포용으로’라는 주제로 연주한다.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
선정 작품 발표

2024.9.3 (화) - 12.8 (일)
청년예술청 그레이룸

유망
예술
지원
사업
서울문화재단
Seoul Cultural Foundation
Seoul Museum of Modern Art
Seoul Center for the Arts

2024 유망예술퍼시스타

차연서 9.3-9.13 **살도 뼈도 없는 나에게 Feed me stones**
손수민 10.1-10.5 **나는 옐로우에 유색에 논-**
칼라 박정은 10.18 **차고와 수갑** 박한희 10.25-26 **Reaching**
towards a Way of Life 티오비그룹 11.1-11.3 **Are**
You Guilty? 이지혜 12.4-12.8 **blank** 햄릿

관람 안내 및 문의



청년예술청 www.sapy.kr



스크린 너머의 세상
음악이 자연처럼 그곳에 존재할 때
걸다가 마주친 춤
경쟁하는 몸, 경쟁하는 마음
낮말은 새가 듣고 낮말은 시가 줄는다
물 앞에서 하는 약속—물다짐
서울, 문화가 뿌리내린 도시
시대를 품은 풍류남아
K-아트와 한국 미술 거장
한국수목 추상 거장, 서세옥

illustr ©slowrecipe

음악이 자연처럼 그곳에 존재할 때

이다혜 작가, 씨네21 기자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는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끝도 시작도 없는 작품이며, 진정한 클라이맥스도 진정한 해소도 없는 음악이자, 보들레르 시 속의 연인들처럼 ‘자유롭게 살랑이는 바람의 날개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 음악이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끝도 시작도 없기 때문에, 진정한 클라이맥스도 진정한 해소도 없기 때문에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영화에서 자주 인용된다. 영화가 사랑한 클래식 음악,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어떤 영화에서 어떤 뉘앙스로 흘러나왔을까.

〈잉글리쉬 Пациент The English Patient〉1996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화상을 입은 데다 기억도 잃은 ‘영국인 환자’의 이야기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이탈리아의 폐허가 된 수도원을 배경으로 하는 이 이야기는 영국인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한나와 연합군 스파이로 활동한 도둑 카라바지오, 영국 군대에서 폭탄을 처리하는 공병 킵의 이야기인 동시에, 찬란했던 지난 시절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다. 영국인 환자가 들려주는 옛사랑에 대한 추억은 현재와 교차하며 아련한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느 날 한나는 폭격 때문에 폐허에 반쯤 묻혀 있는 피아노를 발견하고

연주한다. 한나가 연인 킵을 만나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 곡이 바로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다. 첫 곡 아리아와 30개의 변주곡, 그리고 다시 아리아로 마무리되는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대위선율은 얹히고설키며 서로를 보완하고 또 대립하며 진행된다. 완벽한 형식미를 갖춘 바흐의 음악 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히는 이 음악은 〈잉글리쉬 Пациент〉에서 고립된 이들의 쓸쓸함을 가중하기도 하지만 감정을 격동시키는 대신 차분하게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 처연한 감정이 고조되는 기분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바흐가 불면증에 걸린 헤르만 카를 폰 카이저링 백작의 요청을 받고 작곡했다는 설이 있는 (다른 설도 있다)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 속에 숨겨진 치열함으로 영화 〈양들의 침묵 The Silence of The Lambs〉1991의 살육 장면에서 쓰이기도 했다. 한니발 렉터는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틀어놓고 살인한다. 마치 목 끝까지 단추를 채운 셔츠를 입은 듯한 정갈함을 엿보게 하지만 그 속에 숨은 야생성을 상상하게 하는 식이다. 그런가 하면 〈설국열차〉2013에서는 메이슨을 인질로 잡은 꼬리 칸 사람들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만끽하는 2등 칸에 접어드는 순간에 바흐가 흘러나온다. 인간답게 산다는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삶의 순간에 접속하는 순간의 음악적 상징이 바로 바흐인 셈이다.

호소다 마모루 Hosoda Mamoru 감독의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2006은 ‘아리아-30곡의 변주곡-아리아’라는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구조를 영화 내용과 엮어 역동적으로

담아낸 사례로 말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영화가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혹은 역행하는 방식으로 이용했다면,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는 이야기의 구조와 곡의 구조 사이 상호작용이 보다 명확하다는 뜻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곤노 마코토다. 고등학생인 마코토는 쾌활한 열일곱살 소녀다.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그래서 반짝이는 매일이 마코토를 기다린다.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인 고스케·치아키와 야구 연습을 즐긴다. 영원할 것처럼 뜨거운 여름을 닮은, 걱정 근심 없이 살았던 매일의 순간은 이제 이별을 고하려는 참이다. 학교에서는 문과와 이과 사이에서 결정해야 한다. 우정과 사랑을 구분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어울렸던 고스케·치아키와의 날들도 이제 끝날 기미를 보인다. 여학생들이 그들에게 고백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찬란한 여름이 막 기울어가는 시기, 어느 날 마코토는 늦잠 잔 일을 필두로 소소한 불행을 연달아 겪는다. 심지어 방과 후 과학실 구석에서 이상한 물체 위로 넘어지면서 ‘무언가를 본다.’ 이 ‘무언가’의 정체는 곧 밝혀진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길, 마코토는 철도 건널목에서 기차에 부딪힌다. 이제 죽는구나 하는 순간 마코토는 ‘시간을 뛰어넘어’ 무사히 살아남는다.

시간을, 뛰어넘는다. 그것이 마코토의 비밀스러운 능력이다. 마코토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모에게 털어놓는데, 이모는 “네 또래 여자아이들에게는 가끔 있는 일이야”라고 여상하게 답한다. 마코토는 소소한 실수를 바로잡으며 시간을 뛰어넘는 자신만의 능력을 심분

사용한다. 거창한 데 능력을 쓰는 건 아니다. 노래방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부르는 데 활용하는 식이니까. 하지만 마코토는 곧, 성장과 이별의 순간들을, 그리움으로 남을 경험들과 아쉬움으로 추억하게 될 사건들을 모두 없던 일로 만들어버릴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는 마코토가 시간을 되돌릴 때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아리아와 제1변주가 몇 번이고 반복된다. 마코토는 시간을 되돌리면서 같은 사건을 다른 전개로 맞아들이게 된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르고,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결국 맞이할 수밖에 없는 벼락같은 성장과 깨달음의 순간을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다. 아리아와 제1변주의 사용은, 이 애니메이션에서 맑고 경쾌한 마코토와 친구들의 분위기를 그려내는 데 성공한다.

다시, 글렌 굴드의 말로 돌아가보자. 이야기를 정중하게 전진시키면서도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 곡에 대해서,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직관적 인식을 통한 통일성, 그리고 기교와 면밀한 검토에서 비롯하고 마침내 도달한 숙련도에 의해 부드러운 통일성을 갖춘 작품이다. 그 통일성은—이는 예술 작품이 좀처럼 하지 못하는 바인데—힘의 정점에 올라 환호하는 잠재의식적 설계와 도안을 통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음악이 자연처럼 그곳에 존재할 때,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영화의 이야기와 우리의 해석이 되리라. 사랑의 시작, 살인의 시작, 시간을 되돌리는 작은 모험의 순간들에 하나의 곡이 쓰일 때 우리가 음악과 영화에서 보고 듣는 것들이다.

경쟁하는 몸, 경쟁하는 마음

정옥희 무용평론가

파리 올림픽으로 뜨거웠던 여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름 내내 다양한 몸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도 미디어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지만 올림픽 중계는 관념적인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몸, 움직이고 땀 흘리는 몸들을 보여줍니다. 내가 곧 몸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올림픽은 다양한 종목을 한데 모은 이벤트입니다. 파리 올림픽에선 총 32종목 329개 경기에 약 10,500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거기엔 가늘고 긴 몸, 우람하고 단단한 몸, 살집이 있는 몸, 갈라진 근육이 도드라진 몸, 혹은 평범해 보이는 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의 몸이 이토록 다양하다는 점은 새삼 놀랍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이상적인 몸이 엇비슷하다면, 실제 선수들의 몸은 훨씬 다양하니까요.

선수들의 몸은 다르고도 같습니다. 종목별로 차이가 두드러지지만, 종목 내에선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상체가 발달한 수영 선수의 몸, 가늘고 긴 높이뛰기 선수의 몸, 작고 가벼운 승마 선수의 몸, 우람하고 단단한 역도 선수의 몸. 특정 종목에 유리한 몸이 선발되고 또 그 종목을 오래 수행하며 다져지다보니 종목 내의 몸은 서로 비슷해집니다. 이상적인 몸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것은 당연합니다.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는 긴 몸통과

짧은 하체, 키보다 긴 양팔 길이와 큰 폐활량으로 인해 ‘인간 물고기’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가 올림픽에서 총 28개의 메달을 차지할 수 있던 데는 물론 엄청난 노력이 작용했지만, 타고난 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몸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수들의 몸은 각자 다르고 불완전합니다. 탁구 여자 단체전 16강전에서 대한민국 팀과 대결한 외팔 탁구 선수 브루나 알렉산드르나와 도쿄 올림픽 당시 신유빈 선수와의 대결로 유명해진 고령 탁구선수 니 시아리안은 운동선수의 전형적인 몸과는 거리가 멍니다. 청각장애인에 왼손잡이인 골프 선수 디샤 다가르, 교통사고로 짝발이 된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천식에 우울증과 ADHD를 앓은 육상 선수 노아 라일스는 또 어떤가요? 이들 역시 완벽한 몸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스포츠에서의 경쟁은 냉정하고, 그렇기에 공정합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내는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10점 과녁에 화살을 맞힐 수 있다면 키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탁구는 한 팔로 치는 것이고 골프는 타수만 적으면 승리합니다. 양궁·사격 같은 종목은 타고난 몸의 조건에 영향을 덜 받기에 종목 특유의 몸을 쉽게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이들을 보며 우리는 스포츠가 몸의 외형을 완성하거나 전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특정한 역량을 겨루는 활동임을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인 제약하에 동등하게 겨룬다는 규칙이 오히려 우리의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다양한 몸을 포용하게 합니다.

다양한 종목을 교차 시청하면서 스포츠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스포츠의 본질은 신체적인 능력인가요? 스포츠에선 반드시 몸을 열심히, 극한까지 몰아붙이며 움직여야 하나요? 몸을 잘 움직인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흔히 운동을 잘하기 위한 기초 체력으로 근력과 근지구력·심폐지구력·민첩성·순발력·유연성·평형성 등을 듭니다. 테니스나 축구·리듬체조 같은 경기를 보면 이러한 기초 체력을 골고루 갖춘 올라운더all-rounder의 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사격이나 양궁처럼 기초 체력이 덜 중요한 영역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체력이 필요하지만, 승부에 결정적인 요소는 근력이나 지구력보다는 집중력이나 판단력, 자신감과 같은 마음의 역량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스포츠는 신체의 경쟁이거니와 마음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은 신체적인 능력이 유의미하게 차이난다기보다는 그 순간의 집중력과 자신감, 그리고 약간의 운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곤 합니다. 사격 25미터에서 0점을 쏜 김예지나 0.005초 차이로 100미터 달리기에서 우승한 노아 라일스를 보면 스포츠가 신체 능력 너머의 승부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중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며 되뇌던 박상영 펜싱 선수의 주문이 감동이었던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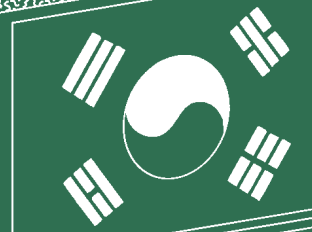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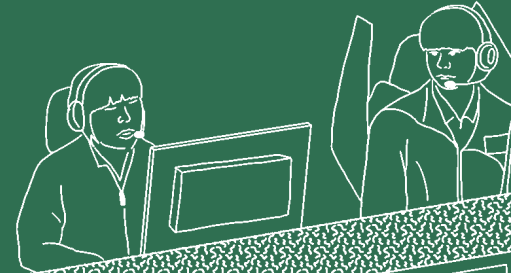
그런데 신체 능력보다도 마음 능력이

더 우선된다면 이를 스포츠라 할 수 있을까요? 일명 마인드 스포츠와 e-스포츠로 불리는 영역은 몸이 아닌 마음의 스포츠요, 경기장이 아닌 컴퓨터에서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일정한 규칙하에 경쟁하는 것은 일반 스포츠와 같지만, 신체적인 능력이 핵심이 아닌 것이죠.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마인드스포츠로 바둑·콘트랙트 브리지·샹치·체스, e-스포츠로 리그 오브 레전드·피파온라인 4·배틀그라운드 모바일·스트리트 파이터 5·도타 2·몽삼국 2 등이 포함됐습니다.

마인드 스포츠 종목은 아직 올림픽에선 정식 종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특히 e-스포츠가 폭력적이고, 신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스포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포용하려는 전략에 따라 향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는 스포츠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포츠에서는 신체적인 역량이 핵심적이고 마음의 역량은 부수적인 것인가요? 땀을 흘려야만 스포츠일까요? 전통적인 스포츠가 ‘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한다면, 마인드 스포츠로 확장된 스포츠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질문이 옮겨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몸이고 몸은 곧 마음이라고 본다면 스포츠의 확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용 연구자인 제겐 확장된 스포츠가 흥미롭습니다. 춤 역시 몸이 중요한 영역이지만, 모든 춤이 반드시 신체적 수월성으로 귀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처럼 예술춤에서도 무용수들은 어려서부터 고된 훈련을 감내하며 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타고난 몸이 아닌 몸, 신체적 역량이 부족한 몸은 도태되곤 합니다. 하지만 신체 능력이 춤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대두하면서 춤은 훨씬 다양한 몸을 포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념적인 작업을 하는 컨템퍼러리 댄스에선 잘 훈련된 몸이나 끝없는 운동성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신체 역량의 비중이 기존 춤보다 적다고 해서 그 자체로 열등한 것도, 그렇다고 우월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의 수많은 종목이 보여주었듯 춤도 다양한 몸과 다양한 역량을 지닌 인간을 포용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물 앞에서 하는 약속 —물다짐

오은 시인

“틈틈이 물 꼭 드시고요.” 메일을 쓸 때
덧붙이는 말이 생겼다. 올여름, 탈수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여럿 본
뒤로 쓰게 된 문장이다. 평소에도 물을
많이 마시지만, 여름철에는 물을 입에
달고 산다. 살기 위해서 마시는 것, 살아

있다는 사실을 생생히 느끼게 해주는
것이 내겐 물이다. 외출했는데 텀블러가
보이지 않으면 금세 초조해지고 입이
바짝바짝 타기 시작한다. 유사 갈증
상태로 나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것 같다. 물을 들이켜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 든 텀블러가 있다는
사실이다.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점이 나를 숨 쉬게 한다. 가능성은 있던
갈증도 사라지게 만든다.

‘물먹다’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됐을 때
당혹스러웠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물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족처럼 붙는
뜻이 눈을 의심하게 했다. ‘식물이 물을

양분으로 빨아들이다’라는 첫 번째
뜻과 “종이나 형질 따위에 물이 배어서
젖다”라는 두 번째 뜻은 고개를 끄덕일
만하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직위에서 떨어어
나다”라는 뜻이 있다. 숭고한 물먹는
일에 왜 이런 의미가 깃들게 되었을까.
이는 바다에 빠진 사람은 별수 없이
물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섭취한
물이고, 몸에 들어간 그 물이 신체적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쯤 되면
‘물먹은 담장’이라는 관용구가 “어느
순간에 허물어질지 모르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물먹다’라는 단어는 나를 자연스레
바다로 이끈다. 지구 표면적의
약 70.8%를 차지하는 넓고 큰 부분.
상상만으로도 짝조름한 냄새가 온몸을
덮치는 것 같은 바다. 수영을 못 하는
나는 그저 멀찌감치 서서 지켜볼
뿐이지만, 멀리서 바라볼 때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음을 가르쳐준 것도
다름 아닌 바다였다. 거리감이야말로
상황을 정확히 꿰뚫는 데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저렇게나 많은 물이
한데 있다니, 고여 있지 않고 흐르고
있다니, 잠시도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다니! 그러니 어릴 적 ‘물바다’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는가. “홍수 따위로 인하여 넓은
지역이 온통 물에 잠긴 상태를 이르는
말”이라는 뜻은 수해 현장 사진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했다.

바닷가에 가면 물부터 본다. 물의 색깔,
파도가 밀려들 때의 속도, 고유한
리듬 속에서 이때금 변주를 눈치채게
해주는 물보라…… 보는 것만으로도

금세 흥만해지지만, 귀까지 즐거우니
망중환을 즐기기 제격이다.
바닷바람을 타고 흠 끼쳐오는
물비린내는 또 어떤가. 후각과 촉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덩어리진 냄새는
잠시나마 나를 바다에 속해 있게 한다.
그럴 때면 물결, 물비늘, 물오르다
같은 단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물로
인해 일렁이고 반짝이고 생장하는
것들을 상상하고 있노라면, 말라 있던
가슴속에 물방울이 맺혔다. 때마침
전화벨이 울리고, 튀어 올랐으면
좋았을 물방울들이 이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물거품’이라는 단어는 “물이 다른
물이나 물체에 부딪쳐서 생기는
거품”이라는 첫 번째 뜻보다
“노력이 헛되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두 번째 뜻으로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 물이 무언가에
부딪치면 자연스레 생기는 게
물거품일 텐데, 이 자연스러움이
실패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점이 자못
서글프다. 웬만하면 부딪치지 말라는
가르침인가 싶다가도, 부딪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없잖은가 반문하게 된다. 살면서
두 번째 물거품을 경험하지 않기로
쉽지 않다. 노력이 헛된 상태가 될
때면 내가 으레 바다를 찾곤 했다는
생각이 들어 흠칫 놀랐다. 그때마다
나는 첫 번째 물거품을 보면서 두 번째
물거품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다.

물거품을 바라보고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거품 덕분에
물이 움직인다는 것을, 무언가와
부딪쳤다는 것을, 제풀에 흘러넘치고
말았다는 것을 차례로 알게 된다.
물거품은 결과고, 이 결과는 뜻한

바와는 다를지언정 내가 한동안
무언가에 골몰했음을 보여준다.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물거품으로 꺼져버려도,
물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물밑듯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지그시 누르고 삶이라는 조수(潮水)에
또다시 몸을 실어야 한다. 이때 두 갈래
이상의 물줄기가 한데 모이는 지점을
가리키는 ‘두물머리’라는 낱말이나
“낙숫물이 댛들을 뚫는다”와 같은
속담을 떠올려도 좋으리라.

물은 ‘사이’를 가리킬 때 종종
동원되기도 한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리켜 “물과고기”라고
하고,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겹도는
사이를 “물과 기름”이라고 일컫는다.
서로 융합하지 못하거나 맞서는
상태는 흔히 “물과 불”로 표현되고,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을 상황에
부딪치면 “물 건너가다”라는 관용구가
소환된다. 물을 건너가면 마냥 좋은
줄만 알았는데, 물이 제 의지대로
건너가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닥치는 대로
살다 보면 남는 것은 “물에 물 탄 것
같은” 삶이다. “물 찬 제비”가 되겠다고
결심했지만 “물에 빠진 생쥐” 꼴로
돌아왔을 때, “물 건너 불 보듯” 하는
사람이 차라리 편하다. “물 만난
오리 걸음”으로 재바르게 그 자리를
떠야 한다.

한결같은 바다 앞에서 내 삶을 건주는
건 어리석은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총명함보다 묵묵한
어리석음이 바다와 더 닮아 있는 듯도
하다. 바다 앞에서 “내 삶의 ‘물참’은
대체 언제 찾아오는 거야!” 포효한들,
바다가 답해줄 리 만무하다. ‘물참’은

물때, 물번, 만조 등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로 “밀물이 들어오는 때”를 가리킨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쓰지만, 정작 물 들어오는 시기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설령 물 들어온다는 사실을 감지했다라도 그 물이 나한테 맞는 물인지 신중하게 파악하다 거짓말처럼 물이 빠져나갈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물 들어올 때를 대비해 노 젓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할 텐데, 노 젓기에 대응할 만한 나만의 비기秘技를 발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바다는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는데, 나 혼자 또 열심히 답하고 있다.

‘물낫’에 동심원이 퍼지고 있다. 물낫은 “물의 걸면”을 의미하는데, 물낫에 피어나는 동심원은 물밑에서 뭔가가 바지런히 움직이고 있음을 일러준다. 물밑 작업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만들어졌으리라. “공기가 물 밑에서 물 위로 떠오를 때 꾸르륵꾸르륵하며 나는 소리”를 가리켜 ‘물방귀’라고 한다. 물밑 작업을 할 때 내서는 안 되는 소리일 것이다. 물론 이 또한 바다 앞에서 있으니까 퍼져 나갈 수 있는 상념이다. 물 앞에서 “물벼락과 불벼락 중 더 무서운 것은?”처럼 실없는 물음을 던지는 오후, 사람만큼은 절대 물로 보지 말자고 다짐한다.

그리고 보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물과 관련된 단어는 바로 ‘물다짐’이다. 이는 건축 용어로 “되메우기를 할 때 흙 속의 공기를 없애기 위하여 물을 흠뻑 주면서 다짐하는 일”을 가리킨다. 다지는 일과 다짐하는 일, 삶을 지탱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물 앞에서 불끈 쥔 주먹 안에 방울꽃이 피어난다.

시대를 품은 풍류남아

김보나 칼럼니스트

선조들의 지혜에 새삼 놀라게 되는 순간이 있다. 바로 절기에 따라 바뀌는 날씨를 경험할 때다. 음력 7월 4일 입추가 지나자, 찌는 듯한 더위 대신 높은 하늘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드디어 숨이 쉬어지는 것만 같았달까. 그러더니 어느새 뚝자리 깔고 소풍하기 딱 좋은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 도포 자락을 날리며 춤을 추고, 나무 그늘에서 부채질하며 쉬는 선비, 한량의 모습을 상상하기 좋은 시기다. ‘한량’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돈 잘 쓰고 잘 노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북한 속담에 ‘돈 없으면 건달, 돈 있으면 한량’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는 실제로 넉넉한 부를 바탕으로 한바탕 잘 노는 이를 가리켜 한량이라 불렀다. 이러한 한량을 주제로 한 민속춤도 전해지는데, 바로 ‘한량무’다.

한량무는 극 형식으로 4~7명이 역할을 맡아 추는 춤과 허튼춤 계열의 남성 독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독무 형태의 춤을 더 쉽게 볼 수 있으나 탈춤이 성행하던 시절에는 극 형식의 한량무가 더 많았고, 이것이 원조에 가깝다.

한량무의 정확한 기원이나 발생 과정을 그려볼 순 없으나, 산대놀이 혹은 조선 시대 남사당패의 연회에서 온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니 더욱 극 형식이 먼저였을밖에. 극 형식의

한량무는 색시·승려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탈춤과 같이 여러 개의 과장으로 나뉘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기승전결을 갖춘 서사에 따라 9개 과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점이 인상적이다. 한량무가 처음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건 1979년 경상남도에서였다. 2005년엔 부산에서 동래한량춤이란 이름으로 등재됐고, 2011년엔 전라북도에서 한량춤이란 이름으로 등재됐다. 그리고 2014년에는 서울에서도 한량무라는 이름으로 시도무형유산이 등재됐는데, 대개 비슷한 형식과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서울은 5과장으로 구분돼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 서사를 짧게 풀어보자면 이렇다. 극마다 색시이기도, 기생이기도 한 미모의 여인이 있다. 여기서는 색시로 하자. 색시가 고운 자태를 뽐내며 한량을 유혹하고 유혹에 넘어간 한량이 색시에게 줄 꽃신을 가지러 간 사이 승려를 만나 그를 배신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것은 4~5명 구성일 때이고, 참여 인원이 7명까지 늘어난 지금은 권력의 정점에서 있는 별감까지 가세하며 갈등이 극대화된다. 후에 색시가 다시 한량과 승려에게 돌아오지만,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다. 이때 슬피 우는 색시에게 측은지심을 느낀 한량이 색시를 용서하고, 결국 모두 화해하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 마치 마당놀이처럼, 출연진 모두가 무대로 나와 한판 흥겨운 춤을 추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한량무가 현대판 마당놀이 구성 당시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삼각 혹은 사각 관계를 통해 사회를 풍자하고 교훈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마당놀이에서 관객의 흥미를 높이는 감초 같은 역할로 뺑파가 등장하듯 여기선 주모가 엉덩이를 흔들며 나타나 관객에게 재미를 주는 것까지 유사하다.

남성 독무로 추는 한량무는 1960년대 전통공연예술이 무대화되던 시절 발생했다. 입춤·남무·선비춤·양반춤 등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근래에는 한량무라 하면 독무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고고한 선비정신을 몸짓으로 풀어낸 춤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극 형식으로 추던 한량무에서 한량의 행실이나 본래 한량이 지닌 사전적 의미만 보더라도 고고함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식은 갖추었지만 출셋길에 나서지 않는 선비가 고고할 순 있겠지만, 한량과



같은 정신을 품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량무 자체를 남무라고 부른 만큼 남성 독무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춤이라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호젓하면서도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몸짓은 풍류와 흥을 표현하는 예술성을 지닌다. 태평무처럼 화려한 복식이 아닌 은은한 빛깔의 도포를 입고, 갓을 쓰는 것이 전부다. 오롯이 몸짓이 유일한 표현의 도구인 셈이다. 물론, 춤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하고자 지역에 따라서 소품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진주에서는 부채나 담배대를 들고 춤을 추기도 한다. 서울에서는 난초나 대나무가 그려진 부채를 들기도 하는데, 모든 것을 내려둔 채 맨손으로 도포 자락을 날리며 등장하기도 한다.

한량무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자연 발생한 춤이라고도 한다. 자연 발생의 의미를 곱씹어 본다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지만, 산대놀이에서 기원을 찾던 극 형식의 한량무가 무대화되고 거기에 지역에 따른 특성이 더해지는 걸 보면 시대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살아 숨 쉬는 춤사위라는 점에서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또, 그것이 한량무가 여전히 생명력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일 수도 있을 거다.

지난 7월, 한국춤 무대화에 이바지해 ‘근대 한국춤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성준의 탄생 150주년을 맞아 홍성에서 한성준 춤·소리 예술제가 열렸다. 이 무대에서 당시 한성준이 춘 한량무가 재연됐다. 강선영 예인에게 전해진 이 춤은 극 형식의 춤으로, 부채를 든 한량과 색시가

무대에 올랐다. 강선영은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한량무’를 전승하는 한성준류 강선영춤 보존회를 이끌고 있다. 8월 31일 국립국악원 〈토요명품〉 무대에도 남성 독무로 구성된 한량무가 올랐다. 〈토요명품〉은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춤·기악·성악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 선보이니 눈여겨봐도 좋겠다. 이 시대 진정한 풍류남아를 위하여.

한국 수묵 추상 거장, 서세옥

박현주 뉴시스 미술전문기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화가는 그림을 남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명언은 진리다. AI 시대지만 여전히 손맛이 빛은 명품은 남아도 빛을 낸다.

타계한 지 4년 된 ‘한국 수묵 추상’ 거장 고故 서세옥(1929~2020) 화백이 부활할 조짐이다. 올가을 대한민국 최대 미술축제 키아프·프리즈 아트페어에 작가의 작품이 설치미술가 아들(서도호)과 건축가 아들(서울호)의 손에서 재탄생된다.

‘매난국죽’ 전통에 찌든 한국화를 수묵 추상으로 진화시킨 서세옥의 ‘인간 군상’이 21세기 첨단 기술과 만난다. 먹선으로 어깨를 걸치고 춤추는 군상을 은유한 대표작 〈춤추는 사람들〉 등이

예술을 입은 기술의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아들 서도호는 작가로서는 최초로 LG의 투명 올레드OLED TV를 활용해 아버지의 ‘군상’ 작품을 오마주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아버지의 작품 세계가 장남과 차남의 시각으로 재해석된다는 점과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의 특성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서세옥 화백이 평생 종이 위에 담은 한국 현대 수묵 추상화를 두 아들이 오늘날 가장 최신의 디스플레이로 입체성을 더하고 공간성을 극대화하는 연출이다.

설치미술가 서도호는 기술을 활용하면서 생전 어렵게만 느꼈던 아버지의 말을 기억해냈다. “아버님은 수묵화를 하시면서 항상 무한한 우주와 공간을 자주 언급하셨는데, OLED 스크린이 투명해지는 순간 2차원의 평면에 3차원 공간감이 생기는 것 같았고, 수천 년 동안 볼 수 없던 그림 뒤쪽의 공간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은 경험이었다.”

예술은 이제 기술과 교감하면서 세대를 넘는 영감과 스토리를 다시 써내고 있다. 평생 먹과 붓으로 작업했던 서세옥 화백이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분명한 건 예술의 힘이다. 예술가의 DNA는 대를 잇는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91세로 별세한 서세옥 화백은 한국 화단의 큰 어른이었다. 〈춤추는 사람들〉 군상 작품처럼 인간 연작을 작업한 작가는, 개인과 공동체의

연결성을 고민하며 수묵화를 한 단계 나아가게 했다.

작가의 예술적 DNA로 한국 현대 미술사의 계보도 이어지고 있다. 장남 서도호는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세계적인 설치 작가가 됐고, 그의 딸도 예술적 재능을 보인다. 2023년 리만퍼핀 서울에서 열린 서세옥 추모전 《삼세대: 서세옥(1929-2020)을 기리며》는 서도호와 서울호, 그리고 손주들의 작품이 함께한 전시로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면 서세옥 화백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조명해본다. 1929년 대구 출생으로, 아버지는 한학자 서장환(1890~1970)이다. 독립운동과 의병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줄 역할을 한 항일지사였다. 서세옥은 어린 시절부터 한문과 서예, 시 쓰는 법을 배웠다. 한시를 자유자재로 짓고 또 쓸 수 있는 마지막 동양화가 세대였다.

1946년 서울대학교 미술학부 1기로 입학했다. 4학년 때인 1949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꽃장수〉로 국무총리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1960년대에 전위적 예술가 그룹 ‘묵림회墨林會’를 결성, 동양화 혁신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26세에 서울대 교수가 된 뒤 40년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전통 동양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수묵 추상’이라는 자신만의 독창적 화풍을 개척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수묵의 선·점만으로 서로의 손을 잡는 등 사람들의 다양한 형상을 그린 ‘사람들’ 시리즈를 선보였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로 ‘손에 손잡고’ 하나

된 사람들의 화합과 희열의 몸짓을 보여주는 수묵 군상은 작가의 상징적인 그림이 됐다.

어깨동무하고 어우러지는 그림처럼 작가의 작품은 사후 미술관에 기증돼 화제를 모았다. 유가족은 작가가 평생 그린 작품 2,300점과 수집한 작품 990여 점을 성북구립미술관에 기증했다. 성북구에 작품을 기증한 것은 작가의 성북동에 대한 남다른 애정 덕분이었다. 서세옥은 60년 이상 성북동에 살면서 2009년 개관한 자치구 최초의 등록미술관인 성북구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했고, 명예관장을 맡은 바 있다. 서세옥을 중심으로 1978년에 시작된 ‘성북장학회’는 성북의 미술인이 작품을 판매한 기금을 지역 장학금으로 조성하는 모임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작가의 대규모 기증에 대해 “서세옥 작품 세계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기증의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미술관도 놀랐지만, 조건 없이 작품을 내놓은 유족의 결정은 미술계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성북구는 ‘서세옥 컬렉션’ 기증을 계기로 서세옥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생전에 “작품은 여러 사람이 보고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서세옥은 또한 타계 전인 2014년 자신의 시대별 대표작 등을 추려 100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바 있다. 미술품은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닌 같이 보고 공유하는 ‘공공재’다. 이건희 컬렉션이 미술관에 기증돼 전국 순회전까지 펼쳐며 감동을 선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BEHIND THE SCENE
작년 서울거리예술축제 현장.
(사프^{SSAF}의 계절) 가을이 되면, 추석 연휴와 함께
어김없이 축제가 찾아옵니다. 이번 연휴에도 축제를
준비하고 운영하느라 밤낮없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축제기획2팀에 미리 응원을 보냅니다.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EPILOGUE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알차고 풍성한 소식만
가득 담은 9월호를 추석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곳곳에서 열릴 축제와 전시, 공연과 함께 독자분들
모두 넉넉하고 푸근한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안미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EPILOGUE
숨이 턱턱 막히는 힘든 시간이 지나고 그나마 숨을
쉴 수 있게 된 건, 반복되는 절기가 올해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은 덕분이다. 때가 되면 돌아오는
축제지만 그 내용은 매년 다르고 알차다. 절기처럼
믿고 기다리는 이유.
전민정 편집위원

CONTRIBUTORS
이토록 더운 여름이라니! 외출이 두려운 계절이
무색하게도 취재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해사한
모습으로, 지친 기색도 없이, 게다가 시원한 음료와
함께 모두를 챙기는 우리 대리님께 한여름의 감사를
전합니다.
김태희 디자인이끼 에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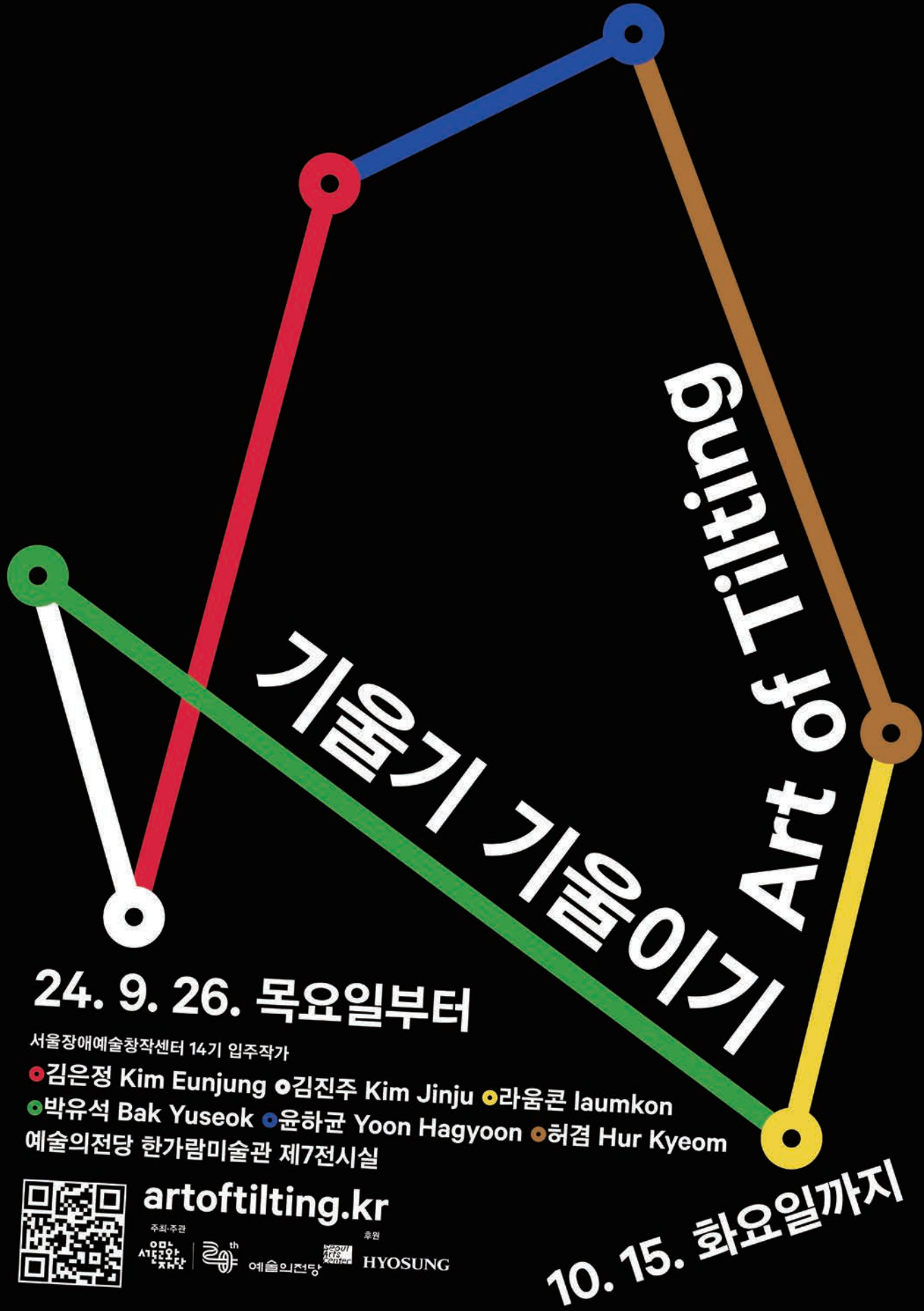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24. 9. 26. 목요일부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4기 입주작가

●김은정 Kim Eunjung ●김진주 Kim Jinju ●라움콘 laumkon
●박유석 Bak Yuseok ●윤하균 Yoon Hagyoony ●허겸 Hur Kyeom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10. 15. 화요일까지



artoftilting.kr

주최·주관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예술의전당
HYOSUNG